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2

박영민 외

1. 나, 너, 우리가 만나는 길

(01) 문학의 해석과 생활화

한 그림이 다른 그림에게_정희성

* 문제로 확인

본책 010~011쪽

01 ① 02 ③ 03 ⑤ 04 위로(위안) 05 ③

01 이 시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신’과의 재회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나’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함께 엮어 나갈 ‘하나의 꿈’이자 지향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맺게 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 오답풀이 | ①, ② ‘당신’과 ‘나’를 ‘날(실)’과 ‘씨(실)’에 비유하여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⑤ ‘추운 길목’과 ‘오랜 침묵’은 시적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난, 또는 시적 화자와 ‘당신’이 함께 이겨 내야 할 어려움을 의미한다.

03 이 시는 ‘~있다면’, ‘~된다면’과 같이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시적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ㄴ). 또한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와 같이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ㄷ). 그리고 유사한 문장을 첫 부분과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ㄹ).

04 ‘손’은 위로 또는 위안을 의미하며,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는 것은 ‘나’와 ‘당신’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5 ‘겨울’은 시적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난 또는 시적 화자와 ‘당신’이 함께 이겨 내야 할 어려움을 의미한다.

꼭집게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12~013쪽

01 ③ 02 하나의 꿈 03 ③ 04 ③ 05 ③ 06 ① 07 ②
08 도치법을 사용하여(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09 ② 10 ③

01 ‘당신’과 ‘나’를 옷감을 짤 때 교차하여 엮는 두 실, 즉 가로 실인 ‘날실’과 세로 실인 ‘씨실’에 비유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나’가 서로의 꿈을 엮어서 만들어 갈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시구는 ‘하나의 꿈’이다.

03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당신’과 함께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견뎌 낼 수 있으며, 그 끝에 ‘나’와 ‘당신’이 만나면 서로 슬픔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적 화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고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재회를 확신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시는 처음과 끝부분에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배치(수미상관 구조)하여 ‘당신’과 만날 날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보기>는 시인의 다른 작품인 「저문 강에 삼을 씻고」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가의 다른 작품’을 해석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이 시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당신’을 그림자와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면, 하나의 꿈을 엮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나 성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당신’의 관계를 사회적 차원으로 해석하여 ‘당신’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로 본다면, 하나의 꿈을 엮는 것은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공동체적인 연대와 관련된 ‘사회적 연대의 의지와 실천’이 적절하다.

07 <보기>의 관점에서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를 해석한다면,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의 창작 시기인 1970년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시는 당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신’과 ‘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당대 민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시에서 ‘추운 골목’, ‘오랜 침묵’은 시적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이를 1970년대 상황과 관련지으면, 민중들이 살아가는 힘겨운 현실로 볼 수 있다.

④ 이 시가 창작된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당대 민중들이 갈등과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소망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외롭고 긴 기다림’은 시적 화자가 참고 이겨 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를 1970년대 상황과 관련지으면, 산업화로 인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민중들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08 ㉠에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도치법을 사용해 문장 표현에 변화를 줌으로써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표현 방법으로 도치법, 혹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썼다.	☐
표현 방법에 대한 효과로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알맞게 썼다.	☐

09 이 시는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당신’의 결을 항상 있었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유형 어미를 활용한 부분이나, 시적 대상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 오답풀이 |** ① ‘당신이 ~할 때에(거든) 나의 꿈은 ~ 되어서 ~겠습니다’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느니다’와 같은 상대를 아주 높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시각(작은 별), 촉각(맑은 바람), 청각(‘귀뚜라미’ 귀뚜라미의 울음) 등의 심상을 활용하여 ‘당신’을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는 ‘당신’이 산보하거나 낮잠을 자는 상황, 책을 보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때에 ‘당신’의 머리 위를 지키거나 주위에 떠돌거나 책상 밑에서 우는 등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10 ‘귀뚜라미’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참고 자료

감정 이입

감정 이입은 작가가 자신 또는 독자의 감정을 작품 속의 특정 대상이나 인물 등에 이입시키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대상이나 인물이 가진 감정에 동화되거나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게 한다. 감정 이입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이루어지며, 독자가 작가가 의도한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도록 유도한다.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014~015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06 ④ 07 ④ 08 ③ 09 감상문 기록하기, 문학 동아리 참여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다.

01 (가)는 ‘~있다면’, ‘~된다면’과 같이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나)는 ‘산보할 때’, ‘낮잠을 자거든’, ‘책을 볼 때’와 같이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02 (가)는 ‘기다리리’, ‘춤계 하리’에서 종결 어미 ‘-리’를 사용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당신’과의 재회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과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느니다’와 같은 상대를 높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털어놓는 듯한 고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 ‘겨울’과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의미하는 ‘한 폭의 비단’, ‘하나의 꿈’을 대립적 시어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현재에 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에 만족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하강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③ (가)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한 폭의 비단’에 비유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가)는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춤계 하리’에서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나)는 평서형 문장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란 시인을 대신하여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말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한 시적 장치이다. 시적 화자의 태도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자세나 대응 방식을 말한다. 시적 화자의 태도는 어조를 통해 드러난다.

- 비판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
- 냉소적: 대상을 업신여기며 비웃는 태도
- 체념적: 희망을 갖지 않고 단념하는 태도
- 초월적: 고통을 종교 등으로 뛰어넘으려는 태도
- 예찬적: 대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찬양하는 태도
- 성찰적: 자기 자신이나 특정 사건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
- 관조적: 대상과 거리를 두고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태도
- 의지적: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
- 회의적: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태도

03 <보기>를 참고할 때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는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구는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04 ①, ②, ④, ⑤는 모두 작가의 생애 및 승려라는 작가의 신분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이에 비해 ③은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즉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05 (가)의 시적 화자는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며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과 만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시적 화자 역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당신’은 모두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경험이나, 배경지식, 가치관 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감상하더라도 독자마다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해석에 타당성을 얻으려면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작품에 쓰인 시어나 시구의 의미, 이미지와 운율 등의 표현 요소뿐만 아니라 작가의 생애 및 다른 작품, 작품을 수용할 독자,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07 ㉠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신’과 ‘나’가 함께 이루어 갈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의 바람이 실현되는 과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은 ‘당신’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드러낼 뿐, ‘나’의 바람이 실현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과 ㉡은 모두 ‘당신’과의 만남, 혹은 ‘당신’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② ㉠은 ‘한 폭의 비단’에 비유되고 있고, ㉡은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 등의 다양한 자연물로 변용되고 있다.
 ③ ㉠은 ‘당신’과 ‘나’가 이루어 갈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고, ㉡은 ‘귀뚜라미’라는 자연물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지키겠다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⑤ ㉠은 ‘당신’과 ‘나’가 ‘날(실)’과 ‘씨(실)’로 만나서 함께 이루어 가는 사랑의 결실이고, ㉡은 자연물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곁에 머물겠다는 시적 화자의 다짐과 의지를 의미한다.

08 ‘그리움’이라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인격화가 된 ‘그리움’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 ① ‘당신’과 ‘나’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날(실)’과 ‘씨(실)’이 한 폭의 비단을 이루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②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나’는 맑은 바람이 되어 더위에 지친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배려와 희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귀뚜라미’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귀뚜라미’가 되어서라도 ‘당신’의 곁에 있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09 <보기>에서 문학의 생활화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문학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학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작품 낭송하기, 감상문 기록하기, 문학 동아리 참여하기, 누리 소통망을 활용해 작가나 출판사와 소통하기, 작품 감상을 블로그에 올리기, 작품 감상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등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학을 생활화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맞게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게 썼다.	☐

➤ 참고 자료

문학의 생활화

개념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 즉,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문학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함.
효과	개인은 내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공동체의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음.
실천 방법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문학 감상 및 창작물 공유, 낭송·낭독 모임, 작가와의 만남, 문학 동아리, 북 콘서트, 문학관 방문, 문학 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02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꼭 읽게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18~021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③ 05 ③ 06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07 ④ 08 ① 09 ④ 10 경험 11 ②

01 (가)와 (나) 모두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가)는 뇌 과학 측면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창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를 지적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2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천재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를 읽고 창의적인 사람들에 관한 오해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03 ㉔~㉔는 창의적인 성취를 얻기 위한 후천적 노력을 의미한다. 반면에 ㉔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창의적 능력 또는 재능을 의미한다.

04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활용한 자료 화면은 신경 과학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가 만든 '1만 시간의 법칙' 이론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모두에서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② 세 번째 문단에서 청중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만 시간의 법칙' 이론을 소개하였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바둑 7급과 7단의 사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과 운전 경력이 7년 된 사람의 사례를 제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두 번째 문단에서 질문과 관련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청중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05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변형하는 것이 창의적 발상을 떠올리는 데 방해가 된다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비유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관념(원관념)을 다른 유사한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한다.

원관념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
보조 관념	원관념의 뜻이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기 위해 끌어들이는 대상

07 (가)의 발표에서 발표자가 청중의 이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표는 창의성에 관심은 있으나 전문적인 수준의 배경지식이 없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뇌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②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③ 발표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통해 창의성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 이상의 사람들을 청중으로 예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 예상 청중이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08 [A]에서 발표자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전문 용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고, 청중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발표 내용을 이해했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A]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발표자와 청중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나)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서 벗어나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을 예로 들어 동화적인 상상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첫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였다.

⑤ 첫 번째 문단에서 똑같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나가는 안정도 빼앗길 수 있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도전을 포기한다면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상되

는 부정적인 결과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0 (가)는 마지막 문단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역시 마지막 문단에서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 글쓴이 모두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사회적 독서 활동'은 책을 읽고 다른 독자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독서 경험과 독서 활동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개인의 느낌이나 의견을 차별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④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책 『어린 왕자』에 나온 그림을 사례로 들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였다.

02 (가)의 발표자는 지속적으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문단에서 발표자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전문 용어인 '에프엠알아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발표의 목적은 뇌 과학 측면에서 창의적 존재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② 발표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경청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예상 청중이 창의성에 관심과 흥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회자는 발표 중에 지속적으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⑤ 세 번째 문단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마지막 두 문단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창의성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꾸준히 쌓는다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읽고 작성한 독후감의 제목으로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으로 깨우는 창의력'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나)는 상상력이 아니라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룬 글이다.

② (나)에서 동화를 활용한 것은 일반인들이 창의성에 대해 가지는 오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동화 속 상상의 세계를 살펴보면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이유를 언급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 남과 다른 선택과 도전으로 새로움을 주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의 글쓴이는 안정보다 도전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나)의 일부분이므로 주제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해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제이다.

04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짜 놓은 틀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대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지식 안에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창의적이라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고난도 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022~02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7**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08** ③ **09** ② **10** ④

01 (나)의 글쓴이는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지식이나 사실 관계의 확인만이 아닌 동화적인 상상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창의성과 지능 지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② (가)는 뇌 과학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③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바둑 7단인 사람의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 즉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창의성과 지능이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한 것이다.

② 바둑이 7급인 사람은 충분히 숙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할 만한 수를 찾는 순간만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모든 상황에서 지적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뜻이다.

③ 바둑에서 ‘중요한 순간’은 전세를 역전할 만한 수를 찾는 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은 전세를 역전할 만한 수를 찾는 순간,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05 (가)는 두 번째 문단의 ‘지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에서 지식을 음식에 비유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나) 역시 두 번째 문단의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사례를, (나)에서는 뉴턴의 사례를 들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② (가)와 (나) 모두 질문하고 이에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청중과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나)는 스티브 잡스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가)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④ (가)는 운동을 할수록 신경 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전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나)에는 연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06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발표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는 창의적 생각이 필요한 순간에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노력한다면 누구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 오해와 이에 대한 비판 및 반박을 다룬 글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가)의 발표를 듣고 (나)의 글을 찾아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07 [A]에서 발표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생각이 필요한 순간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노력한다면 누구나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B]의 글쓴이 역시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A]와 [B] 모두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B]의 문장을 활용하여 알맞게 썼다.	☐
70점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8 (가)의 발표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독서하기’와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장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가)의 발표자는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청중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발표 주제를 선정한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첫 번째 문단에서 목소리의 크기를 높이는 준어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세 번째 문단에서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을 활용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③ 청중의 흥미와 관심, 요구를 고려하여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고와 행동 방법,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청유형 문장으로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⑤ 발표자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청중에게 확인하며 이를 바로잡기도 하는 등 청중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청중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방법

- 예상 청중의 특성(관심사, 배경지식, 이해 수준, 주제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고 청중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발표 전략을 사용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10 ㉠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 ㉡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 ㉣, ㉤은 창의성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와 관련된 것들이다.

01 ④ 02 ㉠의 상징적 의미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고, 이와 의미가 비슷한 시어는 '하나의 꿈'이다. 03 ④ 04 ① 05 ① 06 ⑤ 07 ⑤ 08 ①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② 14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④

01 이 시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신'을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기 바라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은 낱실과 씨실이 만들어 낼, 즉 '당신'과 '나'가 서로의 꿈을 엮어서 만들어 갈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므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하나의 꿈'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사랑의 결실' 또는 유사 답안으로 ㉠의 상징적 의미를 알맞게 썼다.	☐
㉠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시어로 '하나의 꿈'을 썼다.	☐

03 '우리들의 사랑을 출게 하리'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 내겠다는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시련을 인내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② '당신'과 시적 화자의 관계를 낱실과 씨실에 비유하여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었다.
③ 첫 부분과 끝부분에 구조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는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한편,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 있다면', '~ 된다면'과 같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적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당신'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4 '손'은 위로, 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서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윽한 눈'을 보내는 것 역시 슬픔과 그리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심과 연민 등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A]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하나의 꿈'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로, '당신'과 '나'가 만들어 내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

로움', '겨울', '외롭고 긴 기다림'은 시적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난 또는 시적 화자와 '당신'이 함께 이겨 내야 할 어려움을 의미한다.

06 (가)와 (나)의 시적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신'을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과 의지가 드러나고, (나) 역시 '당신'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시적 화자의 소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 참고 자료

「나의 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고백적, 희생적
주제	'당신'에 대한 사랑
특징	• 경어체를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 • 구조가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07 ⑤는 시어의 의미를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상황이 아니라 작품의 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당대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가)의 '당신'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민중으로 해석하였다.
② (가)에서 '추운 길목'의 의미를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근거로 해석하였다.
③ (가)의 '하나의 꿈'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④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근거로 (나)의 '당신'을 '조국' 또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08 (가)의 '겨울', (나)의 '여름날'과 '가을밤'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기는 하지만, 시적 상황을 나타낼 뿐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계절의 순환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② (가)는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나) 역시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는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등과 같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였고, (나)는 '당신'이 '산보할 때', '낮잠을 자거든', '책을 볼 때'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④ (가)는 전통적인 정형시에서 벗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자유시이고, (나)는 자유시이면서 행의 구분 없이 줄글로 된 산문시이다.
⑤ (가)는 '가다리리', '출게 하리'에서 종결 어미 '-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였고, (나)는 '-느니다'와 같은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적으로 표현하였다.

➤ 참고 자료

시상 전개

시상 전개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관념을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시간의 흐름	'과거-현재-미래', '봄-여름-가을-겨울'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공간의 이동	'먼 곳 → 가까운 곳', '위 → 아래' 등 장소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방식
기승전결	'기(시상의 제기) → 승(시상의 심화) → 전(시상의 전환) → 결(시상의 집약)'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09 ㉓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㉔는 '여름날'의 '더위'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항상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10 이 발표는 뇌 과학 측면에서 창의적 존재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발표자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발표자의 경험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 참고 자료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도입부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발표 주제 및 목적을 안 내함.
전개부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함.
정리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11 (나)에서 발표자는 발표 내용과 관련한 질문으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후,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발표자는 뇌 과학과 관련한 창의적 존재의 특징 및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 등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② (나)의 첫 번째 문장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고 있다. ④ (다)에서 바둑 7급인 사람과 7단인 사람,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과 7년이 된 사람 등의 사례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다. ⑤ (다)에서 발표자는 바둑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청중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운전 경력과 관련된 질문으로 내용을 바꾸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12 (가)~(다)는 뇌 과학의 측면에서 창의적 존재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다)를 통해 창의적인 사람들은 평소에 많은 지식을 쌓고 필요한 기술은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 충분히 익힌 후,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발휘함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창의적이라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 진짜 중요한 상황일 때 자신의 지적 에너지를 확 모아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 순간 특별한 지적 능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오히려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힌다고 하였다. 창의적인 사람이 천재적인 발상을 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13 글의 시작 부분인 (가)에서 독자에게 친숙한 뉴턴에 관한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질문으로 제시한 후, 이어서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독자가 창의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나)의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며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서 스티브 잡스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이 글은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비판 및 반박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사람들은 창의성이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글쓴이는 창의성이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글쓴이는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창의성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찾아 알맞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5 (나)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다)에서 글쓴이는 기존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르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글쓴이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을 뿐 기존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뉴턴은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직접 했고, 더 발전된 분석과 계산을 하려고 미적분을 고안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뉴턴이 업적을 이루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숙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생각하고 이것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하여, 창의성의 핵심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⑤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생각을 하고 남다른 경험을 쌓으며 창의성을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6 (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공통적인 화제는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7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수면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는 동안 쓸데없는 정보를 버리고 의미 있는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데, 잠이 부족하면 많은 경험을 해도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 신경 세포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의성을 높여 주는 신경 세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익숙한 방법이나 내가 만든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③ (가)에서 창의적 존재가 되려면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만나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적인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여행하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18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고(ㄱ), 다섯 번째 문단에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ㄴ).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 언어적 표현과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ㄷ).

| 오답풀이 | ㄷ.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니며 내용을 점층적으로 전개한 것도 아니다.

ㄹ.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19 (나)의 글쓴이는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한데,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내가 갖는 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지식이나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0 ㉓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익숙한 방법으로 그림을 본 것이라면, ㉔는 코끼리를 삼킬 만큼 큰 뱀이 있는 것을 알고 동화적 상상력으로 그림을 본 것이다. 즉 ㉔는 지식이나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동화적 상상력(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을 더해 대상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2. 미래로 이어지는 국어의 발자취

(01) 국어와 매체의 변화

꼭집게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35~036쪽

01 ③ 02 ② 03 등극에 04 ① 05 ④ 06 ② 07 ①

01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개의 자음이 발음되었다.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이 발음된다.

참고 자료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

이어 적기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옮겨서 적는 방법 ㉠ 사루미, 업시
끊어 적기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그 각각을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는 방법 ㉡ 사람이, 없이

02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성조)로 의미를 구별하였으며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 오답풀이 | ① ‘날·로·부·메’에서 명사형 어미 ‘-음’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문·훈’, ‘망·고노·니’, ‘수·비’에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자인 ‘ㅎ(여린히음)’, ‘ㅇ(옛이음)’, ‘ㅼ(순경음 비읍)’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부정 명사나 높여야 하는 유정 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사용되었다. 현대어로 ‘나라의 말’로 해석되는 ‘나·랏·말·ㅅ·미’에서 부정 명사 ‘나라’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ㅼ·들’, ‘날·로·부·메’, ‘ㅼ·리·미니·라’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 도조기 입과 눈, 사·스·민·등, 쇠·머리, 내·님금

㉡ 부·텃·말·ㅅ·, 나·랏·말·ㅅ·

㉠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하는 체언(구)이 유정 체언(사람이나 동물)일 경우 ‘이/의’가 사용되었다. 이때 쇠, 내·처럼 모음 뒤에서는 ‘ㅣ’가 사용되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이기도 했다. 선행하는 체언(구)이 사람이라도 존칭이거나 부정 체언(사물)일 경우 관형격 조사 ‘ㅅ’이 사용되었다. 중세 국어에 쓰인 관형격 조사 ‘ㅅ’은 현대 국어에서는 ‘나뭇가지’처럼 합성어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03 ‘등·국·에·달·아’는 ‘중·국·과·달·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에’는 보통 앞말이 처소나 진행 방향, 원인 등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데, ‘등·국·에·달·아’에서는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을 비교하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 ‘에’는 현대 국어의 ‘과/와’와 같이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나·랏·말·ㅅ·미’에서는 체언 ‘말·ㅅ’의 끝소리가 자음 ‘ㅁ’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미’는 체언의 끝소리를 조사 ‘이’의 첫소리로 이어 적은 것이다.

| 오답풀이 | ② ‘아·니·훈·ㅅ·씨’에서 ‘ㄹㅅ’는 ‘-아서/-어서’, ‘-(으)므로’로 해석할 수 있는 어미이다.

③ ‘어·린·ㅂ·빅·ㅅ·성·이’에서는 주격 조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내·이·ㄹ·물’에서는 모음 뒤에 오는 주격 조사 ‘ㅣ’와 목적격 조사 ‘를’을 확인할 수 있다.

⑤ ‘便·安·한·크’는 ‘편·안·하·게’로 해석되며 조사를 확인할 수 없다.

05 ‘어·옛·비’는 중세 국어에서 ‘불·쌍·하·게, 가·엷·게’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화한 단어의 예에 해당한다.

06 (가)는 휴대 전화 대화방이고, (나)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가)와 (나) 모두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에 해당하는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대화방에 접속한 특정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였다.

③ (가)에서 ‘ㄱㄱ’, ‘꼴·잡’과 같은 새말과 줄임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는 사진과 그림말이, (나)는 영상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직접 만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07 ‘잘·방’이라는 신조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말샘’에서는 찾을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우리말샘’에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도 등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우리말샘’은 일반 사용자가 어휘를 등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이다. 이러한 ‘우리말샘’의 특징은 검색창 아래 부분에 제시된 ‘편집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제시된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조어의 등재 여부이다. 둘 다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단어를 검색하였다는 점에서 검색 방식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것의 검색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④ ‘우리말샘’에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전문어나 신조어 등뿐만 아니라 표준어도 함께 등재된다.

01 ② 02 ② 03 ② 04 ④

01 ‘스뭇디’의 기본형은 ‘스뭇다’이다. ‘스뭇다’에서는 중성으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자음에 속하지 않는 자음인 ‘ㅈ’을 ‘ㅅ’으로 바꿔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쁘.들’은 ‘쁘’와 목적격 조사 ‘을’을 이어 적은 것으로,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쁘’에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방점은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성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③ ‘퍼·디’는 현대어 ‘퍼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④ ‘.내’는 현대어 ‘내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음 뒤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⑤ ‘.부·메’는 현대어 ‘썸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명사형 어미 ‘-음’은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와 형태가 다르다.

+ 참고 자료

중세 국어의 성조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가 있어서 뜻을 구별하였으며,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었다.

종류	방점의 개수	소리의 특징
평성	없음	낮은 소리
거성	1개	높은 소리
상성	2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03 ‘전츠’는 ‘까닭’을 뜻하는데, 현대 국어와 형태만 다르고 의미는 같다.

| 오답풀이 | ①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데, 현대 국어와 형태만 다르고 의미는 같다.

③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④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므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⑤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라는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04 ㉠의 ‘에’는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의 ‘과/와’와 같이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산과 같다.’에서 ‘과’는 ㉠ 「1」의 뜻으로 쓰인 부사격 조사이므로

그 의미가 ㉠와 가장 비슷하다.

| 오답풀이 | ① ‘범인과의’ ‘과’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레몬과 굴의’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③ ‘친구들과의’ ‘과’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⑤ ‘가족과의’ ‘과’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62)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

본책 040~041쪽

꼭잡게 꼭 모단원 평가 문제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 된소리, ㉡: 반영하지 않으므로, ㉢: 법석 06 ④ 07 ㉠: 선율, ㉡: 시청률, ‘선율’에서는 ‘ㄴ’ 받침 뒤에 ‘ㄹ’이 이어진 것이므로 ‘율’로 적어야 하며, ‘시청률’에서는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다른 음운 뒤에 ‘ㄹ’이 이어진 것이므로 그대로 적어야 한다. 08 ③ 09 ④ 10 ⑤

01 ‘뫼다’는 [막따]로 소리 나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뫼다’라고 적은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는’은 조사이므로 앞말인 ‘나’와 붙여 써야 한다.

② ‘뫼다’는 [박따]로 소리 나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④ ‘나 물 좀 다오.’와 ‘나물 좀 다오.’와 같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⑤ ‘꽃이’는 [꼬치], ‘꽃도’는 [꼇또]로 발음되지만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인 ‘꽃’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

02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드디어’, ‘그’, ‘소식’, ‘을’, ‘들으니’, ‘그저’, ‘기쁠’, ‘따름’, ‘이다’는 각각 하나의 단어이다. 다만 조사는 단어이지만 그 앞의 단어와 붙여 써야 하므로 조사인 ‘을’, ‘이다’는 앞말에 붙인다.

03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따르면 모음 ‘ㅛ’로 끝난 어간에 ‘-았-’이 어울려 ‘ㄹ’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한다. ‘내놓다’의 어간 ‘내놓-’에 어미 ‘-았-’이 붙은 ‘내놓았-’이 준 형태인 ‘내놨-’이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내놨다’는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기이므로 ‘내놨다’로 고쳐 써야 한다.

04 ‘같이’는 어간 ‘갈-’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단어이고, ‘익히’는 어간 ‘익-’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단어이다.

| 오답풀이 | ① ‘웃음’은 어간 ‘웃-’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단어이다.

③ ‘같이’와 ‘웃음’은 둘 다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이고, 각각 어간 ‘갈-’, ‘웃-’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④ ‘웃음’과 ‘익히’는 둘 다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이고, 각각 어간 ‘웃-’, ‘익-’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⑤ ‘같이’, ‘웃음’, ‘익히’는 모두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05 ‘법석’과 ‘법쩍’ 중 맞춤법이 올바른 표기는 ‘법석’이다.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받침 ‘ㄱ, ㅂ’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법석’은 [법쩍]으로 소리 나지만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06 모음 ‘ㅜ, ㅛ’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나/너, ㄸ/ㄹ’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따라서 어간 ‘뵈-’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뵈어’로 적거나 축약된 형태인 ‘뵈’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07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 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과 ㉡에 쓰인 ‘룰’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음대로 적어야 하지만, ㉢은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울’로 적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올바른 표기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의 올바른 표기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08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르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띄어 써야 하므로 ‘삼 대 일’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상대국’은 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의존 명사 ‘대로’는 앞말인 ‘아는’과 띄어 써야 한다.

② ‘입니다’는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므로 앞말 ‘공간’과 붙여 써야 한다.

④ ‘담그다’의 어간 ‘담그-’와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하는 경우, 모음 ‘ㅡ’가 탈락하므로 ‘담갔다’로 표기해야 한다.

⑤ ‘실었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9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시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인 ‘네’와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하루’와 ‘종일’은 각각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공부만’에서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먹은 후’에서 ‘후’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다양하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다양하다’의 활용형 ‘다양하게’는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나예요’와 ‘나예요’ 중 맞는 표기는 ‘나예요’이다. ‘나이에요’는 체언 ‘나’에 조사 ‘이다’의 어간 ‘이-’와 어미 ‘-예요’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예요’는 ‘나’와 같이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고난도 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042~043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① 06 ④ 07 ②

01 ‘소쩍새’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고, ‘살짝’과 ‘몽땅그리다’는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므로, 모두 된소리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딱지’와 ‘법쩍’은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담복’은 ‘ㅁ’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담뽕’으로 적어야 한다. ‘씩뚝’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씩뚝’으로 적어야 한다. ‘해속하다’는 두 모음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해씩하다’로 적어야 한다.

02 ‘뵈다’는 ㉢에 따라 어간 ‘뵈-’에 선어말 어미 ‘-았-’이 어울려 준 대로 적은 것이므로, ‘뵈다’는 올바른 표기이다(ㄱ). 또한 ‘뵈다’는 ㉣에 따라 어간 ‘뵈-’에 선어말 어미 ‘-었-’이 어울려 준 대로 적은 것이므로, ‘뵈다’와 ‘되었다’는 모두 올바른 표기이다(ㄴ).

| 오답풀이 | ㄴ. 어간 ‘내놓-’에 선어말 어미 ‘-았-’ 어울린 것으로, ㉠에 따라 ‘내놨다’로 표기해야 한다.

ㄷ. 어간 ‘놓-’에 선어말 어미 ‘-았-’이 어울린 것으로, 줄여 쓰지 않고 ‘놓았다’로 표기할 수도 있고 ㉡에 따라 준 대로 적어 ‘놨다’로 표기할 수도 있다.

ㄹ. 어간 ‘썩-’에 선어말 어미 ‘-었-’이 어울린 것으로, 줄여 쓰지 않고 ‘썩었다’로 표기할 수도 있고 ㉢에 따라 준 대로 적어 ‘썩었다’로 표기할 수도 있다. ‘썩었다’를 풀어 쓰면 ‘썩어있다’가 되므로 ‘썩었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벌이'와 '다듬이'는 각각 동사의 어간 '벌-'과 어간 '다듬-'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너머'는 어간 '넘-'에 '-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단어이고, '마중'은 어간 '맞-'에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단어이다. 두 단어 모두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단어여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다.

③ '쇠붙이'는 어근 '쇠'에 접미사 '-붙이'가 결합한 단어로, 명사에 해당한다. '갈이'는 어간 '갈-'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단어이다.

④ '달맞이'는 어근 '달'에 접미사 '-맞이'가 결합한 단어로, 명사에 해당한다. '미닫이'는 어간 '미닫-'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단어이다.

⑤ '믿음'은 어간 '믿-'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단어이다.

04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르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쓰므로, '삼 대 일'로 써야 한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르면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보조사 '뿐'과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인 '입니다'는 앞말에 붙여 '이해뿐입니다'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05 '공부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오답풀이 | ② '만한'은 보조 형용사로,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르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본용언이 복합어이고 그 활용형이 3음절 이상인 경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만 허용하기 때문에, '손꼽힐 만한'이 올바른 표기이다.

④ '네 시간 만에'의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⑤ '돈가스 만', '음식 만'의 '만'은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06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따르면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어야 하지만, [붙임 1]에 따르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남여'의 '여'는 단어의 첫머리에 온 것이 아니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음대로 '녀'로 적어야 한다.

07 ㉠과 ㉡의 한자는 모두 '年度(연도)'로 같다. 그런데도 표기가 다른 이유는, ㉠은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을 뜻하는 명사인 반면에, ㉡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다. 제10항의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음대로 적은 것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44~04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이, ㉡: ㅣ, ㉢: 이 08 ㉠ 09 ㉠ 10 ㉢ 11 ㉡ 12 ㉠: 먹음 만큼, ㉢: 의존 명사, ㉣: 조사, ㉤: 나만큼 13 ㉡ 14 몽땅, '몽땅'에서 'ㅇ'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15 ㉢ 16 ㉢ 17 ㉤

01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서문(序文)은 15세기 국어의 모습과 함께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자료이다.

02 '펴·디'는 현대 국어에서 '펼치'로 표기한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구개음화를 표기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펼·디'라는 표기 자체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나·랏·말·ㅅ·미'에서는 관형격 조사 'ㅅ'과 주격 조사 '미'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개의 자음이 발음되었다. 'ㅅ'은 종성으로 발음된 'ㅅ'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어·엿·비'에서 '어'와 '비'의 왼쪽에 찍힌 방점이 다른 것으로 보아 두 글자의 성조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ㅅ·루·미·라'에서 'ㅅ·루'와 '미·라'가 결합하면서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03 중세 국어에서 '스·뫋다'는 '통하다'라는 뜻이고 어미 '-ㄹ씨'는 '-아서/-어서, -(으)므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스·뫋·디·아·니·홀·씨'는 '통하지 아니하여서'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중세 국어에는 '·쁘·들', '·뿌·메'와 같이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머리에 14개의 홀자음(ㄱ, ㄴ, ㄷ 등)과 5개의 쌍자음(ㄲ, ㄸ, ㅃ, ㅆ, ㅈ)만 올 수 있다.

+ 참고 자료

어두 자음군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쁘', '뿌'와 같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현대 국어에서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 '·쁘·들(뜻을)', '·뿌·메(쌈에)'

05 중세 국어에서 ‘하다’는 ‘많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하나라’의 기본형 ‘하다’는 현대 국어의 ‘하다’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단어의 의미 변화의 유형

단어의 의미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의미의 확대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짐.
의미의 축소	단어의 의미 영역이 좁아짐.
의미의 이동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다른 것으로 바뀜.

단어의 의미 변화의 예

중세 국어에 사용된 단어는 현재 국어에서 의미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어·린	어리석은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뀜.
·노·미	보통 사람이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됨.
·어·엿·비	가엾게, 불쌍하게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뀜.

06 ‘百·백·姓·성’에서 ‘백’의 ‘ㅍ’는 양성 모음, ‘성’의 ‘ㅅ’는 음성 모음이므로 양성 모음이면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이면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ㅍ·들’에서는 음성 모음인 ‘ㅡ’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ㅈ·룰’에서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뫼·꺄·노·니’에서는 양성 모음인 ‘ㅛ’, ‘ㅜ’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ㅍ·메’에서는 음성 모음인 ‘ㅜ’, ‘ㅔ’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성, 음성, 중성 모음

양성 모음	ㅛ, ㅜ, ㅔ
음성 모음	ㅡ, ㅗ, ㅓ
중성 모음	ㅣ

07 ‘나·랏·말·ㅅ·미’와 ‘·노·미’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 조사가 ‘이’로 실현되었고, ‘·흙·배’에서는

‘배’와 같이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나 반모음 ‘[j]’가 아닌 모음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가 ‘ㅣ’로 실현되었다.

08 생산자와 수용자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중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매체의 특성

- 댓글 등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음.
- 문자,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함.
-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큼.

09 (가)의 대화는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나)에만 해당한다.

10 ‘표준 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공통적으로 검색한 단어는 ‘짤방’이다. 이 단어는 줄임말 또는 새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는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우리말샘’은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으로 언어문화의 변화를 비교적 빠르고 폭넓게 반영하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은 단어의 쓰임이 충분히 자리 잡은 후 의미와 표준성 등을 검토하여 등재하기 때문에 반영 과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② 두 사전에서 검색한 단어는 ‘짤방’으로 줄임말에 해당한다. 이러한 줄임말을 사용하면 문자를 보다 간단하게 입력하게 되므로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⑤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이나 새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줄임말이나 새말이 기존의 우리말을 대체하게 되면서 어문 규정에 알맞은 우리말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줄임말이나 새말을 모르는 세대와의 소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11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가게’, ‘에서’, ‘과자’, ‘한’, ‘봉지’, ‘만’, ‘사기’, ‘로’, ‘약속했다’는 각각 하나의 단어이지만, ‘에서’, ‘만’, ‘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2 (1) ‘접시에는 먹을 만큼 담아라.’에서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 42항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2) ‘나만큼 키가 큰 정후.’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 41항에 따라 조사는 그 앞말과 붙여 쓴다.

13 '길이'는 어간 '길-'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으로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 참고 자료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더듬이, 길이, 웃음, 익히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예 곰곰이, 툼툼이, 번번이
2. '히'로만 나는 것 예 극히, 급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예 꼼꼼히, 심히, 쓸쓸히

14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몽땅]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여 '몽땅'으로 적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맞춤법이 올바른 표현을 선택하였다.	☐
'몽땅'이 올바른 표현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5 ㄷ의 '일이예요'에서 '이예요'는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로 줄여 쓸 수 있지만, '일'은 받침이 있는 체언이므로 줄여 쓰지 않고 '일이예요'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드릴게요'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든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모습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모습이든지'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자랑스럽다'는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어간의 'ㅂ'이 어미 '-은'과 결합할 때 'ㄴ'으로 바뀌므로 '자랑스러운'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겉맞다'는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 아니라 '-(으)ㄴ'이므로 어간 '겉맞-'에 어미 '-(으)ㄴ'이 결합한 '겉맞은'으로 고쳐 써야 한다.

16 한글 맞춤법 제6항은 받침 'ㄷ, ㅌ' 뒤에 '-이(-)'나 '-히-'가 표기와 다른 소리가 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한 것이다.

17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었다.'에 쓰인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대로'가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붙여 쓴다.

② '대로'가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가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쓴다.

④ '대로'가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쓴다.

3.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힘

(01) 매체를 보는 다양한 시선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52~055쪽

01 ④ 02 ③ 03 ② 04 인간의 역할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② 12 ⑤ 13 ②

01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로 내용을 전달한다. 인터넷 신문 기사도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지만 인쇄 매체와 달리 사진, 영상, 그래프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오답풀이 | ① 인터넷 신문 기사는 추천, 댓글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독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② 해시태그(#)에 기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기사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③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독자가 관련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⑤ 인터넷 신문 기사는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해시태그의 뜻과 기능

해시(hash)는 '묶어모음'을 뜻하고 태그(tag)는 '꼬리표'를 뜻한다. 해시태그(#)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사용해 정보를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으로, 특정 주제를 묶는 용도로 쓰인다. #특정단어'로 묶어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표현하고,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져서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단 다른 글을 검색할 수 있다.

02 (라)를 통해 제이슨 앨런이 상을 받은 뒤 수상작 사진이 누리소통망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마)를 통해 기계가 개입한 예술을 둘러싼 논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를 통해 제이슨 앨런은 문자를 이미지로 바꿔 주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를 통해 처음 카메라가 발명됐을 당시 화가들은 사진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통해 제이슨 앨런이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 신인 디지털 예술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03 표제에서 '악마의 영감을 받은 느낌'이었다는 앨런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ㄱ). 부제에서는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 필요해'와 같이 글쓴이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ㄴ).

오답풀이 | ㄴ. 표제에서 앨런의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의 말이 아니라 앨런의 말을 인용하였다.

ㄷ. '논란'이라는 말은 부제가 아니라 표제에 쓰였다. 표제에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사에서 인공 지능 그림과 관련된 논쟁을 다룰 것임을 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04 글쓴이는 (바)에서 '예술을 예술답게 만드는 본질은 무엇이며,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해서 그 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인간의 역할'이다.

05 (마)에서 과거에도 인공 지능과 같이 기계가 개입한 예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공 지능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인공 지능 그림을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예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 특정 견해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①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과 동영상은 인공 지능이 예술의 영역에 개입된 현상을 보여 주기 위한 자료이다. 이러한 시청각 자료는 독자로 하여금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는다.

② 글쓴이는 기사에 인공 지능에 그림에 우호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어느 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계가 개입한 예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논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④ 이 글에는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과 같이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이 예술로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⑤ (마)에서 19세기 프랑스 시인 겸 미술 평론가 샤를 보들레르의 말을 인용하였다. 기사에 사진 기술에 대한 보들레르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예술에 개입하였을 때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신문 기사 개관

갈래	인터넷 신문 기사
성격	사실적, 객관적
주제	인공 지능 그림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특징	· '표제-부제-본문'으로 구성됨. · 실제 사례, 사진, 동영상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움. · 직접·간접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인공 지능 그림을 둘러싼 상반된 견해를 제시함.

06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을 평가할 때는 글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글쓴이의 관점이 독자들의 관점을 대표할 필요는 없다.

▶ 오답풀이 | ①은 표현 방법의 적절성, ②는 신뢰성, ④는 공정성, ⑤는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다.

▶ 참고 자료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 평가하며 읽기

- 타당성: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타당하고 적절한가?
- 공정성: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 신뢰성: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였는가?
- 표현 방법의 적절성: 표현 방법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가?

07 글쓴이는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공 지능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기>의 학생은 인공 지능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칸에 인공 지능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8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가)와 같이 제작이 완료된 영상 광고를 보기 때문에 제작자가 실시간으로 시청자 의견을 수용하여 영상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설득을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로, 시청자가 영상 광고를 보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시청자를 설득해야 한다.

② (가)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공익 광고이다.

③ 영상 광고는 문자와 음성, 그림, 음향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양식성을 지닌 매체이다.

⑤ (가)와 같은 광고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호소력 있는 언어 표현과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구성 방식을 사용한다.

09 (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장면을 반복하여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0 (가)에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반어적 표현이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오답풀이 | ②, ③ 자막에 ‘~지만 ~을/를 ~고’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한다.

④ (가)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서 서로 돕고 사는 삶에 대한 제작자의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⑤ (가)에 사용된 광고 문구, 이미지의 구성 방식, 배경 등의 표현 방식이 존중과 배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11 [비평 자료 1]에서는 주제의 시의성,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한 공감 유도, 영상 전개 방식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제, 소재, 구성 방식’에 주목하여 비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평 자료 2]에서는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뀐다는 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성, 핵심어 안에 다양한 소재를 옥여넣은 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등장인물, 구성 방식, 소재’에 주목하여 비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평 자료 3]은 요즘 가장 민감한 주제인 다양성을 가지고 만든 광고라는 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출연시켰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제, 등장인물’에 주목하여 비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매체 비평은 대상을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되,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⑤는 비평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 (가)의 주제는 서로의 상황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된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광고의 주제라는 내용은 비평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13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을 분석하고(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분석해야 한다(ㄴ). 또한 매체 자료에 드러난 글쓴이 혹은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평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ㄹ).

▶ 오답풀이 |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는 다른 비평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보고, 자신이 비평한 내용과 비교해 봐야 한다(ㄷ). 비평 자료를 만들 때는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을 포함해야 한다(ㄹ).

▶ 참고 자료

매체 비평을 하는 방법

매체 비평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 다른 비평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보고, 자신이 비평한 내용과 비교해 본다.
-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을 포함하여 비평한다.
- 매체 자료에 드러난 글쓴이 혹은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01 ⑤ 02 ⑤ 03 ① 04 ⑤ 05 ① 06 인간이 도구를 활용해 만든 창작품이라는 점에서 인공 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다. 07 ① 08 ④ 09 ⑤ 10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평가할 때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11 ② 12 ⑤

01 (라)로 보아 앨런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 정확한 문구를 입력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앨런 쪽을 옹호하고 인공 지능 그림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인공 지능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여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리라는 예측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바)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이미지 도구들이 나름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면서 예술의 개념을 확장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공 지능이 예술가와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만든 그림이다.

③ (마)에서 샤를 보들레르가 사진 기술을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비난하였으므로 사진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라)를 통해 앨런의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에 관한 논란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에는 그래프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글은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시각 자료)을 사용하여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인터넷 신문 기사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문 기사는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독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② 이 글은 인공 지능이 개입된 그림 작품의 수상 소식과 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시각 자료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인 표제, 부제, 본문을 갖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인공 지능 그림 #예술 #과학 기술 #인간의 역할과 같이 해시태그(#)를 사용해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03 이 글에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옹호하는 입장과 비난하는 입장의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글에 인공 지능 그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글쓴이가 어느 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글에서 인공 지능 그림과 관련된 논쟁을 다룰 것임을 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표제에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③ "악마의 영감을 받은 느낌"이었다는 앨런의 말과 누리 소통망 이

용자의 말을 직접 인용했고, 앨런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간접 인용했다.

④ 글에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과 동영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 그림이 미술전에서 수상한 사례를 제시했다.

⑤ 글쓴이는 (바)에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04 (마)에서 샤를 보들레르는 카메라가 발명됐을 당시 사진 기술을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비난하며, 기계가 개입한 예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인간의 창의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교훈을 시사한다는 평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바)에서 글쓴이는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해서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공 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며 예술에 대한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 지능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06 '예술쟁이'는 인공 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입장은 '인공 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다.'이다. 이와 비슷한 (라)의 앨런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근거로 '인공 지능이 만든 그림은 인간이 도구를 활용해 만든 창작품이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예술쟁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댓글을 서술하였다.	☐
제시된 문장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07 (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익 광고이다. (가)와 같은 공익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참고 자료

광고의 종류

- 상업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만든 광고이다.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 공익 광고: 일반적인 상업 광고와 달리 기업이나 단체 혹은 정부가 사회 문제, 교육 환경의 조성, 환경 보호 등 공공복지와 이익 향상을 주제로 만든 광고이다.

08 자막에 ‘다르지만’, ‘이어 가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상황과 입장이 다를지라도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고의 주제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9 [비평 자료 1]은 (가)의 주제, 소재, 구성 방식에 주목하여 비평하였다. [비평 자료 2]는 (가)의 등장인물, 구성 방식, 소재에 주목하여 비평하였다. [비평 자료 3]은 (가)의 주제, 등장인물에 주목하여 비평하였다. [비평 자료 2]와 [비평 자료 3]이 (가)의 문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0 (가)와 같은 광고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평가할 때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타당하고 적절한지(타당성),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지(공정성),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였는지(신뢰성), 표현 방법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표현 방법의 적절성)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
제시된 문장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11 하나의 소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시청자들에게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많은 소재가 등장해 광고의 핵심 메시지가 열어졌다고 비평할 수 있다(ㄱ). 이 광고는 다양한 성별, 나이, 국적의 인물들이 등장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존중과 배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비평할 수 있다(ㄷ).

▶ 오답풀이 ▶ 나. (가)에서는 다양한 세대, 성별, 인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ㄷ. 요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여 갈등이 커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가 ‘존중과 배려’를 주제로 설정한 것은 시의성이 있어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의성’이란 ‘당시의 상황이나 성질과 딱 들어맞는 성질’을 뜻한다.

12 매체 비평은 매체 자료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매체 자료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도 포함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동일한 매체에 대한 다양한 비평 자료를 찾아보면 자신의 관점에만 매몰되지 않고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다.

② 비평 자료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매체 자료에 드러난 글쓴이 혹은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하게 비평할 수 있다.

④ 자신과 관점과 다른 비평 자료를 찾아 읽어 보면서 비평하고자 하는 매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02 보고하는 글 함께 쓰기

본책 062~065쪽

꼭꼭 꼭 소단원 평가 문제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② 08 ② 09 ⑤ 10 ③ 11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글을 완성함으로써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등

01 (나)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생각 그물 만들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보고서에 사용할 내용을 마련할 수 있고 도서, 신문,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마련할 수도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③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의 쓰기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도서,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마련한다.

02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작문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작문 관습이란 글을 쓸 때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체나 표현 방식, 규칙 등을 말한다. ‘현민’의 말을 통해 보고서의 목적은 작문 관습에 따라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및 소감, 참고 자료’로 구성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선주’가 동아리 누리집에 게시한다는 것으로 보아 보고서를 인터넷 매체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예선’의 말에서 보고서의 주제가 ‘공연 관련 직업 정보’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예선’과 ‘정후’의 말에서 보고서의 목적이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선주’의 말에서 보고서의 예상 독자가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임을 알 수 있다.

03 [자료 2]는 공연 관련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한 출처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출처가 공공 기관의 누리집이므로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자료 1]은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의 주제인 공연 관련 직업 정보와 어울린다.

③ [자료 2]는 공연 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관련 학과, 필요한 지식 영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예상 독자에게 유용한 자료이다.

④ [자료 3]은 설문 조사 자료로, 설문 조사 결과 수치를 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면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⑤ [자료 4]에서 면담 대상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밝히면 자료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04 공동 보고서는 계획부터 조사, 관찰, 실험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쓰기까지 여러 명의 글쓴이들이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의 쓰기 절차에 여러 명의 글쓴이가 참여한다.

| 오답풀이 | ① 보고서는 조사, 관찰, 실험 등의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담아야 한다.

② 조사, 관찰, 실험 등의 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므로 간결하면서 짜임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보고서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사, 관찰, 실험 등의 과정과 결과를 알리기 위함이다.

⑤ 보고서는 작문 관습에 따라 조사, 관찰, 실험의 목적, 기간, 대상, 내용, 방법, 결과,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해야 한다.

05 ‘[가]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을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공연 시장이 회복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공연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만 제시되어 있을 뿐, 예술가들이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할 때 ‘조사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역할 분담’이다.

07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가] 공연 관련 직업 전망’에서 “따라서 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연 분야에 투자해서 더 많은 공연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1. 조사 동기 및 목적’에 제시된 사진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시된 시각 자료라는 점에서는 적절하나 사진의 출처가 없으므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③ 독자에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 공연 관련 직업 종류’에 ‘연기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다]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공연 관련 직업 체험’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은 ‘직업인 특강·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진로 탐색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⑤ ‘[마] 소감’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장을 나누고 적절한 접속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객관성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야 함.
정확성	관찰, 조사,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함.
신뢰성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야 함.
체계성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과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함.

08 <보기>에서 학생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쓰기 윤리에 위배되므로 <보기>의 학생에게 사회적 쓰기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9 보고서의 개요를 점검할 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개요를 점검할 때는 생성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10 ‘라. 공연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글의 주제인 ‘공연 관련 직업 정보’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삭제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고등학생들의 진로 준비 수준이 높지 않아서 진로 준비를 돕고 싶다는 동기가 잘 드러나고, 공연 관련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도 잘 드러나고 있다.

② 예상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라 ‘마.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을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첫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 및 소감을 밝히므로, ‘바. 소감’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고서의 형식을 고려할 때 ‘4. 참고 자료’에는 자료의 출처 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11 수집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공동으로 글을 쓰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공동 보고서 쓰기의 장점 두 가지 이상을 서술하였다.	☐
각 장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고난도 **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066~069쪽

01 ⑤ 02 ④ 03 [A]에 조사 기간, 조사 대상을 추가해야 한다.
04 ⑤ 05 ④ 06 ① 07 ③ 08 ② 09 ⑤

01 동아리 누리집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매체이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작문 관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작문 관습이란 글을 쓸 때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체나 표현 방식, 규칙 등을 의미한다.

02 공연을 좋아하는 관객과 면담한 내용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연 관련 직업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과 면담한 내용을 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자료 1]은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공연 관련 직업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자료 1]은 ‘5,590억 원’, ‘43퍼센트’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자료 3]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보고서의 주제가 ‘공연 관련 직업 정보 조사’임을 고려할 때 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관련 학과, 필요한 지식 영역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03 조사 계획에는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및 방법, 역할 분담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2. 조사 계획’에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을 추가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조사 계획에 추가해야 할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제시하였다.	☐
제시된 문장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04 ‘라. 공연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공연 관련 직업 정보’라는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ㄷ). ‘마.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은 공연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므로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첫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다(ㄹ).

| 오답풀이 | ㄱ. ‘가. 공연 관련 직업 종류’에 소개된 직업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무대 감독으로 중복된 내용이 없다.

ㄴ. ‘나.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과 ‘마.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은 상호 관계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05 ‘1. 조사 동기 및 목적’ 부분에서 공연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 주고 있지만, 이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공연 관련한 다양한 직업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마]에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밝히고 있다.

②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ㄷ]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라]에서 전문가와 면담한 내용을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⑤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가]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06 ‘공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보고서의 주제에 맞지 않으므로 ‘[가] 공연 관련 직업 전망’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고서는 작문 관습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가] 공연 관련 직업 전망’에서 “따라서 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연 분야에 투자해서 더 많은 공연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② ‘고쳐쓰기’ 단계에서 초고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하기 위해 ‘[나] 공연 관련 직업 종류’에 ‘무대 뒤의 지휘자, 무대 감독’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설문 조사 결과에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보면 ‘공연 관련 직업 체험’이 가장 도움이 되는 진로 탐색 활동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④ ‘[마] 소감’은 문장을 적절히 나누고 ‘그리고’와 같은 접속어를 사용해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해야 한다.

⑤ 보고서의 형식은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및 소감, 참고 자료로 구성된다. 이 형식에 따라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4. 참고 자료'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07 '2. 조사 계획'의 [관] 항목을 보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예선, 현민, 정후, 선주' 네 명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고서가 개인 보고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네 사람이 함께 내용과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고서를 검토하고 고쳐 쓴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8 보고서를 쓸 때는 개인적·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쓰기 윤리를 지키면 진실한 내용을 전할 수 있고(ㄱ),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ㄷ).

09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A 학교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가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설문 조사 결과를 왜곡한 해석이므로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설문 조사에 사용한 질문은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② 설문 조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③ 보고서의 목적이 'A 학교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실태 알리기'이므로 설문 조사의 대상을 '대한민국 고등학생 100명'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고서의 목적이 'A 학교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실태 알리기'이므로 영양학 전공 서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A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70~073쪽

01 ② 02 ④ 03 존중과 배려는 성별,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4 ⑤ 05 ① 06 ② 07 ⑤ 08 ④**

01 (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기사이므로 객관적인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나)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이므로 호소력 있는 언어 표현이나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댓글로 독자와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③ 기사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광고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④ (가)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문자 언어와 사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나)는 영상 광고로 영상, 음성, 문자 언어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는 해시태그(#)로 기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 광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기사의 구성

표제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함.
부제	기사의 분량이 많을 경우 사용하며 표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전문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본문	기사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것으로 육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함.
해설	본문 뒤에 덧붙여 사건의 전말, 분석, 평가 등을 제시함.

02 <보기>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제이슨 앨런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두 번째 문단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가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모두 제시한 의도는 어느 한쪽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대상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광고 제작자는 여성, 남성, 한국인, 외국인, 젊은이, 어르신 등 광고에 다양한 세대, 성별, 인종의 인물을 등장시켰다. 광고 제작자가 짧은 영상 속에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존중과 배려는 성별,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실천해야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성별,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제작자의 의도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4 (나)는 도움을 받은 당사자들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장면이 이어지는 구성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 물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다소 단조로울 수는 있지만, 이 광고가 공익 광고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장면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매체 비평문은 매체 자료에 대해 분석하거나 평가하여 자신의 관점과 주장을 드러내는 글이다. 따라서 매체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나 판단, 입장 등 필자의 개성적인 관점이 비평문에 포함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매체 비평문을 쓸 때는 매체 자료에 활용된 표현 방법이 어떤 효과와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③ 매체 비평문을 쓸 때는 매체 자료의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매체 자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④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평문을 쓸 때는 제작자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⑤ 매체 자료에는 외부의 현실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해석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06 ‘가’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은 글의 주제와 관련 있고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므로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첫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오답풀이 | ① 보고서의 첫 부분에 공연 관련 사진을 제시하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다. 또한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쓰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보고서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나’ 공연 관련 직업 종류’에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마’ 소감’은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장을 나누고 접속어를 추가해야 한다.

⑤ 설문 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진로 탐색 방법은 ‘직업인 특강·상담’이 아니라 ‘공연 관련 직업 체험’이다. ‘다’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서 ‘직업인 특강·상담’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용은 설문 조사 결과를 잘못 분석한 것이므로 ‘공연 관련 직업 체험’으로 수정해야 한다.

07 이 보고서에는 공동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그 극복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보고서의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작문 관습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결정한다.

② 보고서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계획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③ 보고서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④ 보고서의 ‘초고 쓰기’ 단계에서는 생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작문 관습에 따라 초고를 작성한다.

➤ 참고 자료

보고서 쓰기의 절차

계획하기	보고서의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조사 기간, 방법, 대상 등을 정함.
내용 생성하기	도서, 신문,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글의 내용을 마련함.
내용 조직하기	생성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함.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작문 관습에 맞게 글을 작성하고 고쳐 씀.

08 보고서를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며 자신의 글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 예상한 결과와 다르다고 하여 조사, 실험, 관찰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보고서를 쓰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 참고 자료

쓰기 윤리

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말한다. 쓰기 윤리의 종류에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있다. 보고서를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적 쓰기 윤리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한다는 것
사회적 쓰기 윤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활용하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

4.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

(01) 사랑, 그 속에 담긴 아픔

서경별곡_작자 미상

문제 확인

본책 078~079쪽

01 ⑤ 02 질삼뵈 03 ⑤ 04 ②

01 이 시가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노래하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질투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으나 임과의 이별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가는 반복되는 부분이나 여음구를 제외하면 '서경이V서울히V마르느'와 같이 글자 수가 대체적으로 3·3·3자로 반복되는 3음보 율격을 지닌다.

② 이 시가는 고려 가요로, 민간에서 구전으로 유행하다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된 노래이다.

③ 이 시가에서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와 같은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과 통일감,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1~4연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며 연모의 정을 드러내고 5~8연에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맹세한다. 그리고 9~14연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불안감과 사공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

02 '길쌈'은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는 일로, 길쌈하던 베를 의미하는 '질삼뵈'는 시적 화자의 생업이 드러나는 시어이다. 당시 '길쌈'은 주로 여성들이 맡아 하던 노동이었기에 시적 화자의 성별이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은 사공의 아내로, '네 가시 림난디 몰라셔'를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셔'로 해석할 경우 시적 화자가 오히려 사공의 아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은 이어지는 '고외마른'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의 삶의 터전으로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곳이다.

② ㉡은 '구슬이 바회예 디신돌'이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매개로 한 임과 시적 화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③ ㉢은 이어지는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돌(천 년을 외롭게 살아간들)'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가 임과 헤어져 홀로 지내야 하는 시간을 '즈른 히(천 년)'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은 임이 떠나가는 이별의 공간이자 임과 시적 화자를 갈라놓는 단절의 공간에 해당한다.

04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눈'에는 임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라는 시적 화자의 추측이 담겨 있다. '것고리이다'는 앞에 언급된 '고즐여'의 서술어이고, '고즐'은 다른 여인을 꽃에 비유한 것이다. '나눈'은 여음구로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꼭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80~083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④ 05 ㉠과 ㉡는 모두 시적 화자가 임과 단절되는(이별하는) 공간이다. 06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눈 07 ⑤ 08 ⑤ 09 ⑤ 10 ④ 11 ① 12 ③ 13 ② 14 ⑤ 15 ④

01 이 시가는 고려 가요로, 주 작자층이 평민 계층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 삶의 애환 등 일상적인 삶을 노래하는 작품이 많다.

| 오답풀이 | ① 고려 가요는 주로 평민들이 부르고 창작하던 민요적 시가이며, 고려 시대 귀족층에서 향유한 시가로는 경기체가가 있다.

②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나누어진 분연체 구성이다.

③ 매 연마다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느낄 수 있다.

④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되었다.

02 '네 가시 림난디 몰라셔', '넬 비예 연즌다 샤공야'처럼 시적 화자는 특정 대상인 사공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임을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너게 해 준 사공에게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공간적 배경은 '서경'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따라 세 단계(1~4연, 5~8연, 9~14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나눈'과 같은 여음구를 사용하여 음보를 맞추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④ 꽃이 언급되지만 이는 '다른 여인'을 비유하는 것이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도 확인할 수 없다.

03 이 시가는 '서경이V서울히V마르느'와 같이 대체로 3·3·3자의 반복되는 3음보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하였으며(ㄱ),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돌'에서 천 년이라는 시간으로 상황을 과장하여 시적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ㄴ). 또한, '긴히튼 그즈리잇가', '신(信)잇든 그즈리잇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ㄷ).

| 오답풀이 | ㄴ. 5, 6연과 7, 8연이 대구되고 있으나 이는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ㄹ. '구슬'과 '긴(끈)'이 바위에 떨어졌을 때의 속성을 대조하여 시적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㉔은 시적 화자가 사공의 아내를 비방하는 말로, 임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배를 띄운 사공을 원망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㉔에서 '질삼뵈'는 여성의 생업의 수단이므로, ㉔을 통해 시적 화자가 길쌈을 하며 살아가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② ㉔에서 시적 화자는 임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울면서 쫓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㉔을 통해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려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③ ㉔에서 시적 화자는 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기가 하겠느냐며 임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을 통해 임에 대한 믿음을 맹세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⑤ 시적 화자는 임이 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질투심을 표출하고 있다. ㉔에서 '고졸'은 임이 만날 새로운 여인을 의미하며 시적 화자의 질투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05 ㉔은 임이 배를 타고 떠난 공간이고, ㉔은 임이 빠져 죽게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㉔과 ㉔은 모두 시적 화자가 임과 단절되는(이별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과 ㉔의 공통점을 알맞게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추어 썼다.	☐

06 '비 타면 것고리이다'에서 꽃을 꺾는다는 것은 임이 대동강 건너편에서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시적 화자의 염려가 나타나는 표현이다.

07 (가)와 (다)는 남녀 간의 이별을, (나)는 남매간의 이별을 소재로 하여 시적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1~4연, 5~8연, 9~14연으로 (나)는 1~4구, 5~8구, 9~10구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다)는 '가-승-전-결'의 네 단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② (나)는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고 (다)는 임이 떠나가는 길에 시적 화자의 분신인 꽃을 뿌리는 축복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승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③ (다)에서 누이의 죽음을 떨어지는 앞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으나 (가)와 (나)에서는 인간의 일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는 '서경'과 '대동강', (다)에서는 '영변'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나)에는 구체적 지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나)의 시적 화자는 9~10구에서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뇌를 종교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 또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가)와 (나) 모두에서 시적 화자가 얻은 깨달음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나)의 시적 화자는 죽은 누이동생과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별에 순응하고 있다.

③ (가)에서 임이 시적 화자를 떠난 이유는 알 수 없고, (나)에서 시적 화자와 누이동생은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헤어진 상황이다.

④ (가)에서 사랑을 지키려고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대상(임)이 아니라 시적 화자이다.

09 (가)의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에게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임을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너게 해 준 사공에게 원망을 떠넘기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와 (다)는 모두 이별로 인한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② (다)의 시적 화자는 임이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주면서 임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뿐 축복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다)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에서 임과의 이별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④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다)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체념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인다.

10 (가)의 시적 화자는 임이 꽃을 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끼긴 하지만, 이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삶의 터전과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쫓겠다며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닷곤 디 쇼성경 고외마른'에서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서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서경', '쇼성경'과 '질삼뵈'를 통해 시적 화자가 서경에 살면서 길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시적 화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맹세한다.

11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쓰는 향찰의 형식으로 표기된 문학 작품을 말한다.

| 오답풀이 | ② (나)는 10구체 향가로, 4구체와 8구체에서 발전하여 향가로서의 형식이 거의 완성된 단계의 형태이다.

- ③ 향가는 주로 신라 시대에 창작되고 향유되던 시가 형식이기에 때문에 향가를 통해 신라 시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떨어질 앞’과 같은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죽음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누이의 죽음을 한 가지에서 난 앞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에 비유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누이의 요절에 대해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이에 저에’는 이승과 저승이 아니고 ‘여기저기’라는 의미이고, ‘떨어질 앞’은 죽은 누이동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㉔에서 이승과 저승을 기웃거리며 시적 대상(누이동생)이 떠도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㉔ ‘나’는 죽은 누이동생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② ㉔ ‘이른 바람’은 누이동생이 요절했음을 암시한다.
- ④ ㉔ ‘한 가지에 나고’는 시적 화자와 죽은 누이동생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 ⑤ ㉔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도(道) 님아 기다리겠노라.’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적 화자가 죽어서 누이동생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다.

13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헌신적 사랑과 정성을 상징한다.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리는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의 정성을, 꽃을 밟고 가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의 희생적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14 유사한 시구를 처음(1연)과 끝(4연)에 반복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ㄷ).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나타내려는 의미와 상반되게 표현하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임과의 이별로 인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ㄷ).

- 오답풀이 | ㄱ. 작품에는 음성 상징어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운율도 확인할 수 없다.
- ㄴ. 7·5조의 음수율과 3음보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나타내고 있다.

15 (다)에서는 이별을 수용하여 참고 견디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모습에서 김소월만의 독자적인 시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정하여 이별의 정한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에서 ‘진달래꽃’은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향토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 ③ (다)는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다)의 작가인 김소월은 민족적 정서를 전통적 가락과 결합하여 당대의 국민감정으로 승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다)를 통해 이 작품이 지어졌을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던 국민 정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고난도 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084~087쪽

- 01 ④ 02 ④ 03 ④ 04 <보기>에서 ‘사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은 개다. 둘 다 시적 화자가 임에 대한 원망을 전가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05 ① 06 대동강 07 ① 08 ③ 09 ③ 10 ① 11 아아 12 ④ 13 ④ 14 ⑤

01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후렴구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연과 연을 구분하고 통일감과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 오답풀이 | ① 약기 소리를 흥내 낸 의성어를 후렴구로 반복하여, 연과 연을 구분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② 작자 계층과 향유 계층이 평민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노래를 지었다. 따라서 평민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시행의 끝에 반복되는 ‘나’는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음구로 운율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⑤ 시적 화자는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사랑을 지키려는 적극성과 현실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시적 화자는 임을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너게 해 준 사공에게 자신을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을 떠넘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쇼성경’은 시적 화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다.
- ② 울면서 임을 좇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⑤ ‘럼난디’를 ‘음란한 줄’로 해석하면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가 되므로 ‘럼난디’의 주체는 사공의 아내이다.

03 이 시가와 <보기>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즈른 흥을 외오곰 녀신들’은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과 믿음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가와 <보기>의 ‘바회’는 모두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 시련을 의미한다.

② 이 시가와 <보기>는 모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과 믿음도 변치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이 시가와 <보기>는 모두 구슬과 끈이 바위에 떨어졌을 때의 속성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이 시가와 <보기>는 다른 작품이지만 비슷한 구절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구절이 구전되고 여러 작품에 사용되면서 작품 간에 유사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보기>는 시적 화자가 싫어하는 임이 오면 개가 꼬리를 치며 반기고,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 오면 개가 뒷발로 버둥거리면서 짖어 사랑하는 임을 쫓아낸다면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이 시가의 시적 화자는 배를 타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떠넘기고 있고, <보기>의 시적 화자 역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떠넘기고 있으므로 둘은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개'와 '사공'이 시적 화자가 임을 원망하는 마음을 떠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
<조간>의 형식에 맞추어 썼다.	☐

05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관계를 '끈'이라는 사물에 비유하여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② (나)에서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로 소멸,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③ (다)의 4연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시적 화자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대동강'은 시적 화자가 임과 이별하는 공간이지만 (나)의 '미타찰'은 시적 화자가 대상과 재회하길 소망하는 공간이다.

⑤ (가)는 전원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는 향토적 소재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사용하였지만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은 이 시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06 '대동강'은 임이 떠나가는 이별의 공간이자 임과 시적 화자를 갈라놓는 단절의 공간이다.

07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임과 이별해야 하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② (가)의 시적 화자는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라고 말하며 임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질투심을 표출하고 있다.

③ (나)의 시적 화자는 죽음 이후 이상 세계인 미타찰(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 정토)에서 죽은 누이동생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④ (나)의 시적 화자는 가지에 붙어 있던 잎이 일찍 떨어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누이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의 시적 화자는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라고 하면서 불교적 믿음을 통해 누이동생과 재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08 (가)는 후렴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와 여음구 '아즐가', '나논' 등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다)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는 3음보 율격과 종결 어미 '-우리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와 (다) 모두 이별의 정한을 그려 내고 있다.

② (가)의 '서경이V셔울히V마르는', (다)의 '나 보기가V역겨워V가실 때에는'과 같이 3음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요적 율격으로 한국 문학의 형식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츠리잇가'에서 설의법을, (다)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반어법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임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다. 반면, (다)의 시적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여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9 '떨어질 잎'은 누이동생의 죽음을 의미한다.

10 시적 화자는 죽은 누이동생을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으므로 불교적 윤회 사상을 창작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나)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낙구 감탄사 '아아'를 통해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시적 화자는 죽은 누이동생을 미타찰에서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독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1 (나)는 10구체 향가로, 제1장(1~4구)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제2장(5~8구)에서 이를 이어받아 시상을 전개한 후 제3장(9~10구)에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제3장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는 앞에서 전개된 시상을 정리하고 시상의 전환을 이끌며 작품을 마무리한다. (나)에서는 '아아'가 그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향가

- 신라에서 고려 전기까지 창작, 향유된 서정시임.
- 향가는 향찰로 표기되었는데, 향찰은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차용하여 우리말을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련된 표기법임.
- 노랫말이 배경 설화와 함께 전승됨.
- 주술적·불교적 성격의 작품이 두드러짐.
- 형식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뉨.

12 ㉔에서 '가는 곳 모르온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무상감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㉔ '고외마른(사랑하지만)'을 통해 '쇼성경'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정을 알 수 있다.

② ㉔ '대동강'은 임이 떠나가는 이별의 장소로 임을 태워 대동강을 건너게 해 주는 존재가 사공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

③ ㉔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는 시적 화자의 누이동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순간을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㉔ '영변'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곳의 지명을 이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13 ㉔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가리키는데 이는 임이 만날 다른 여인을 비유한 것이다. ㉔는 시적 화자의 분신, 시적 화자의 희생,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14 이 시가와 <보기> 모두 자연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에 빗대어 형상화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하여 시적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나)는 3음보, <보기>는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② (나)는 누이동생과의 재회를 소망하며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나라를 잃은 시적 화자의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나)는 누이동생의 죽음, <보기>는 멸망한 조국을 소재로 하여 모두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④ (나)는 9구의 '아아', <보기>는 종장의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영탄적 어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 그 속의 여유로움

강호사시가_맹사성

본책 090~091쪽

문제로 확인

01 ① 02 ⑤ 03 자연 친화적, 안분지족 04 ④ 05 ⑤

01 이 시가는 평시조 4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강호(江湖)에 V 봄이 드니 V 미친 흥(興)이 V 절로 난다'와 같이 4음보 율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시가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계절별로 한 수씩 노래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로다', '-삿다'의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각 수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감과 통일성이 느껴진다.

⑤ 이 시조는 대구법, 대유법, 의인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시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2 이 시가의 시적 화자는 각 계절의 흥취와 생활 모습을 보여 주며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④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며 안분지족을 느끼고 있다.

② [제3수]의 초장에서 '고기가 살찌 있다'를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다른 계절의 풍요로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시적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이를 다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보기>의 시적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보리밥 꽃나물'과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바위 끝 물가'에서 노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가의 [제1수]에서도 초장에서 자연 속에서 봄을 맞는 흥취를 드러내고 중장에서 소박한 상차림으로 시냇가에서 풍류를 즐기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작품의 시적 화자는 모두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 태도와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04 이 시가의 시적 화자는 안분지족의 삶, 유유자적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고 있다. 깊이가 한 자가 넘게 쌓인 ㉔ '눈'은 겨울 이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㉔ '탁료계변(濁醪溪邊)'은 막걸리를 마시고 노는 시냇가로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② ㉔ ‘초당(草堂)’은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살던 선비들이 지내던 별채로,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㉔ ‘소정(小艇)’은 작은 배로,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나가 소일하며 지내는 시적 화자의 모습에서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㉔ ‘누역(纓繹)’은 짚 따위로 엮은 비옷을 가리킨다. 도롱이를 옷으로 삼아 추위를 견디는 모습에서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05 이 시가에서는 주로 각 수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조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유신(有信)한 강파(江波)’에서 강파를 믿음직하다고 표현하며 의인화하고 있다.

② ‘강호(江湖)’에서 자연의 일부로 자연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역군은(亦君恩)이샀다’를 반복함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각 수에 ‘강호에 ~이 드니’, ‘이 몸이 ~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등과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변주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도치법:**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
예 나는 밥을 먹었다 → 나는 먹었다 밥을
-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매개어 없이 ‘A는 B이다’로 결합하는 표현 방법
예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원관념은 내 마음, 보조 관념은 호수임.
- **반어법:** 표현할 내용이 실제의 의미와는 반대로 표현함.
예 (지각한 상황에서) 일찍 왔구나.
- **영탄법:** 감탄사,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벅찬 감정을 표현함.
예 아아, 아름답구나!
- **역설법:** 표면상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진실의 요소를 내포한 표현 방법
예 작은 거인, 차가운 불

01 이 시조는 조선 세종 때의 문신 맹사성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다.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의 평시조 4수가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나 풍자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사설시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㉔에서는 강파(江波)를 의인화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깨달은 바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㉔에서 봄을 맞아 흥이 솟구친다고 말하며 봄을 맞이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② ㉔은 시냇가에서 쏘가리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신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전원생활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③ ㉔에서 ‘일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시적 화자가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㉔에서 시적 화자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물을 던져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욕심 없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03 시적 화자는 각 수의 종장에서 자연을 벗 삼아 조화를 이루며 한가롭게 살며 안분지족을 느끼는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임금의 명령 때문에 자연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시적 화자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가롭게 살며 안분지족을 느낀다. 그리고 각 수의 종장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샀다’를 반복하며 이 모든 즐거움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마무리함으로써 유교적 충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5 (다)는 사설시조로 평시조에 비해 어느 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태이다. 절제된 형식미가 돋보이는 것은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갖춘 평시조인 (가)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하나의 주제를 노래한 평시조 4수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다.

② (나)는 가사로,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산문적인 내용을 4음보의 운율을 활용하여 운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다)는 모두 시조로, 종장의 첫 구절은 각각 ‘이 몸이’, ‘석양이’로 세 글자이다. 이는 시조의 형식 중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⑤ (나)에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다)에는 고유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06 (가)에서는 계절에 따라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나)에서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꼭집게 **꼭**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92~095쪽

- 01 ㉔ 02 ㉔ 03 ㉔ 04 역군은이샀다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㉔

07 (나)는 속세를 의미하는 '홍진(紅塵)'과 자연을 의미하는 '산림'을 대조하여 자연을 즐기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홍진(紅塵)'은 속세를, '삼림'은 자연을 의미하며, 두 시어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③ '수간모옥(數間茅屋)'은 몇 칸쯤 되는 작은 초가집으로,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④ '넷사롬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시적 화자는 옛 사람의 풍류보다 자신의 풍류가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풍월주인(風月主人)'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시적 화자를 가리킨다.

08 (나)에서 의성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울울리(鬱鬱裏)'는 '우거진 속. 뻥뻥한 속'이라는 뜻이다.

| 오답풀이 | ①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있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에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대구법이란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살리는 표현 방법이다.

③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게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 다'에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봄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④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에서 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⑤ '넷사롬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의 풍류에 미친다는 자부심과 봄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탄을 강조하고 있다.

09 (다)는 사설시조로, 주된 작자층과 향유층 모두 중인과 평민 계층이기 때문에 실제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0 (다)의 종장에서 긴 노래, 짧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한가롭고 여유 있는 삶의 풍경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긴 소리 짧은 소리로 탄식하며 노동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점심 도시락 비우고'와 '석양이 재 넘어갈 제'를 통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다)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관찰한 농부의 하루 일과라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농부의 구체적 행동을 열거하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다)의 종장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농민의 한가롭고 여유 있는 삶과 풍류를 보여 주고 있다.

11 (나)의 ㉔는 사대부가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다. (다)의 ㉔는 농민이 건강하게 노동을 하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이면서 힘든 농사일 속에서도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따라서 ㉔는 속세와 반대되는 공간이지만, ㉔는 속세와 반대되는 공간이 아니다.

12 (가)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의 흥취를 영탄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시적 화자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만 임금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② (나)에서 시적 화자가 직접 봄 경치를 즐기는 모습만 나오고 사람들에게 봄을 구경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③ (나)에서 시적 화자가 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소일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이를 통해 시적 화자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모습은 (가)와 (나) 모두 확인할 수 없다.

13 (가)의 '강호(江湖)'와 <보기>의 '강산(江山)'은 자연을 의미하지만, (나)의 '천지간(天地間)'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각 수마다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보기>에는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나)는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있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보기>에는 대구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유신(有信)한 강파(江波)', <보기>는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에서 의인법을 활용하여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수간모옥(數間茅屋)'과 (다)의 '초려 삼간(草廬三間)'은 모두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14 <보기>에서는 사대부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㉔는 시적 화자가 여름에 강바람을 쐬는 모습을 표현한 시구이다. '강파(江波)'가 신의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시적 화자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며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풀이 | ① ㉔에는 자연 속에서 봄을 맞이한 시적 화자의 기쁨과 흥겨움이 드러난다.

③ ㉔는 겨울에 자신의 몸이 춥지 않은 것을 임금의 은혜라고 여기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즉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 살면서도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㉔~㉔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으로 자연을 벗 삼아 안분지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㉔~㉔로 볼 때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㉔는 이러한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뿐 시적 화자가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15 <보기>는 농사일의 근면성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노래하고 있는 평시조이다. (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열하여 농민의 바쁜 일과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보기>는 농사일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과정이 나와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다)는 농민의 바쁜 일과를 소재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보기>는 논매기, 누에치기 등 농사일을 소재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다)와 <보기>에는 모두 4음보의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다)는 한 농민의 바쁜 일과를 담고 있고, <보기>는 시적 화자가 '내 논 다 매여든 네 논 점 매여 주마.'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서로 돕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보기>의 중장 '내 논 다 매여든 네 논 점 매여 주마.'에서 내 일이 다 끝난 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3 <보기>는 관직에서 물러난 시적 화자가 자연에서 강호가도를 즐기는 어부로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연시조이다. 중장에서 '어주(魚舟)(고깃배)'에 누워서도 '북궐(北闕)(궁궐)'을 잊은 적이 없다며 우국충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제세현(濟世賢)(세상을 구할 인재)'이 없겠느냐며 나라에 대한 걱정을 떨쳐 버리려고 한다. <보기>의 중장 '니즌 스치 이시랴'는 시적 화자가 북궐을 잊은 적이 없음을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몸은 자연에 있지만 머리로 는 나라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 오답풀이 | ① (가)의 '강호(江湖)'는 자연을 의미하고, <보기>의 '장안(長安)'은 한양(서울)을 말하는 것으로 속세를 의미한다.

② (가)의 '소정(小艇)'과 <보기>의 '어주(魚舟)'는 모두 작은 고깃배로 시적 화자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나타낸다.

③ (가)의 '역군은(赤君恩)이샷다'는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라는 뜻으로 유교적 충의 사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사대부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보기>의 '북궐(北闕)'은 궁궐, 즉 임금이 계신 곳으로 이곳이 천 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시적 화자와 임금의 거리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04 (다)는 힘든 농사일 속에서도 여유를 누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다)를 통해 노동의 신성함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중장의 '점심 도시락을 비우고'와 종장의 '석양이 재 넘어갈 제'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다.

③ 종장에서 '어이 갈꼬 하더랴.'를 통해 시적 화자가 한 농부의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④ (다)는 사설시조로, 작자 계층이나 향유 계층이 주로 일반 평민이기 때문에 순우리말로 창작되었다. (다) 또한 주로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농민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중장에서 농민이 점심을 먹고 담배를 피며 콧노래를 부르며 조는 모습, 종장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긴 소리 짧은 소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고된 생활 속에서도 흥과 여유를 느끼는 낙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5 '홍진(紅塵)'은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속세를 의미한다. ③에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산 좋고 물 좋은 골짜기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매우 수상하다고 여기는 '세정'은 시적 화자가 지양하는 대상으로, 속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조는 두류산(지리산)의 양단수를 '무릉'에 비유하여 절경을 예찬하고 있다. 여기서 '무릉'은 '무릉도원'으로 이상향,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② 이 시조는 속세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사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초암'은 갈대나 짚, 풀 등으로 지붕을 엮은 암자로 소박한 집을 의미한다.

고난도 **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096~097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③ 06 ④

01 (나)는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어 있고 / 녹양방초(綠樣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에서 봄의 경치를 자세하게 묘사한 반면, (가)는 계절 변화에 따른 시적 화자의 생활은 표현하고 있지만 자연 풍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② (나)에서 시적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풍류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 하루 동안의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⑤ (가)의 '강호(江湖)'는 안분지족을 느끼는 개인적 삶의 공간이자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유교적 충의의 공간인 반면 (다)의 '무림산중(茂林山中)'은 농민이 건강하게 농동을 하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이다.

02 (가)는 시조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여음구는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④ 이 시조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을 즐기자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 작품이다. 여기서 '강산(江山)'은 자연을 의미한다.

⑤ 이 시조는 고국을 떠나가는 우국지사의 비장감을 노래하고 있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옛 이름으로 조국, 고국을 의미한다.

06 ㉠은 칼로 재단하고 붓으로 그려 낸 것처럼 봄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감탄을 드러낸 표현이다. 나무를 칼과 붓으로 손질하여 단정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은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의 풍류에 미친다는 자부심을 표현한 것으로,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산림'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림에 못처 이서 지락(至樂)을 무를 것가'는 자연에 묻혀 살아도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을 안다는 것을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의 '풍월주인(風月主人)'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하며, 풍월은 자연을 의미한다.

⑤ ㉠에서 새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해 교태를 부리며 울고 있는데, 실제로 봄의 흥취를 느끼고 있는 것은 시적 화자이다. 즉 시적 화자의 흥취를 새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03 웃음, 그 속에 담긴 현실

봄 · 봄 김유정

본책 100~113쪽

문제 확인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② 06 ① 07 ⑤ 08 ④
09 이놈의 장인님 10 ⑤ 11 점순이가 성례 문제에 대한 '나'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장인이 몽태에게 감투를 달라고 했지만 몽태가 주지 않자 장인은 몽태의 소작권을 빼앗았다. 17 ① 18 ④
19 ② 20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21 ⑤ 22 ⑤
23 ④

01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이므로, 이 글의 구성과 거리가 멀다.

| 오답풀이 | ①,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자신의 심리와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③ 나의 어수룩한 행동, 사투리와 비속어의 사용 등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농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 '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원인은 '나'는 점순이와 하루빨리 성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장인은 '나'에게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03 이 글은 인물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나'와 장인의 갈등의 원인(성례)이 드러나는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

04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라는 장인의 말과 ‘뉘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를 통해 ㉠의 구체적인 내용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성례를 시켜 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점순이의 작은 키는 장인이 '나'와 점순이를 성례시키지 않으려는 핑계거리이다.

05 ㉠은 '나'가 점순이의 키가 컸는지 확인하는 행동일 뿐, 해학을 유발하는 장면은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은 '나'의 어수룩함이 해학성을 유발한다.

③ ㉠은 점순이를 동물과 비교하는 '나'의 어수룩함이 해학성을 유발한다.

④ ㉠은 '나'의 사리 판단의 미숙함이 해학성을 유발한다.

⑤ ㉠은 치성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해학성을 유발한다.

06 (마)의 ‘반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김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땀다.’를 통해 장인은 전형적인 마름과 같이 거칠고 포악하게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마)의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욕필 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읊의 배 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마)의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마름인 장인은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면 땅을 주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땅을 빼앗는 횡포를 부린다.

⑤ ‘나’에게 가을에 성례를 시켜 줄 것처럼 일을 시키더니 막상 그때가 되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시치미를 떼는 모습에서 장인의 교활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07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으로 피병을 부리고 있다.

08 ㉠는 장인의 원래 이름인 봉필이를 욕을 잘한다는 이유로 ‘욕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말장난을 하고 있는 언어유희이다. 욕을 잘하는 장인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09 ‘나’는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을 비속어(이놈)와 존칭어(님)를 함께 사용한 ‘이놈의 장인님’이라고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0 ‘봄’은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으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며 점순이와 ‘나’가 이성에 대한 사랑에 눈뜨게 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봄’은 청춘 남녀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연정의 계절을 뜻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점순이와 ‘나’의 성례가 곧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11 점순이가 ‘나’가 성례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12 (차)에서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말하며 성례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나’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⑤ (차)의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라는 점순이의 말에서, 점순이는 성례하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비추고 있으며 빨리 성례를 올릴 수 있도록 ‘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인에게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차)에서 점순이가 ‘나’와 장인 사이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성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점순이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는 야무지고 당돌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13 ‘나’는 성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인과 같이 구장에게 갔지만, 구장은 장인에게 땅을 얻어 부치는 소작농이기 때문에 마름인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장인의 편에 서서 ‘나’를 설득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나’는 구장이 성례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장인과 함께 구장을 찾아가는다.

② (카)에서 서울에 다녀오더니 사람은 점잖게 행동해야 한다고 수업을 쓰다듬는 구장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타)에서 구장은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례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이라고 ‘나’의 편을 들었다가 (파)에서 장인의 뒷속말을 듣고 곧장 장인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파)에서 구장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 남의 농사를 망치게 되면 손해로 징역을 간다는 법률적 근거를 들어 ‘나’를 협박하고 있다.

14 몽태는 구장이 소작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에게 말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라는 말로 보아 ‘나’는 몽태의 말을 믿고 있지 않다.

15 몽태는 ‘나’에게 데릴사위로서의 ‘나’의 처지를 일깨우고, 장인의 속셈을 알려 주면서 ‘나’와 장인의 싸움을 충동질하는 역할을 한다.

16 (너)의 ‘몽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름거린다. 그것두 장인님이 저 달라구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좀먹은 걸레)를 선뜻 주었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을 통해 몽태가 장인이 달라고 한 감투를 주지 않아 소작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장인을 싫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점순이가 “침을 잡아채지 그냥 뉘, 이 바보야!”라고 말한 것을 들은 ‘나’는 점순이의 말에 슬픔과 무안함을 느껴 얼굴이 어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게 되었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②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 ‘나’가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이것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자신이 점순이에게 타박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그래!”에서 점순이가 성례 치르는 것을 허락받는 일을 해결하지 못한 ‘나’를 구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를 통해 장인의 인색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뜨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를 통해 ‘나’ 스스로도 장인에게 강하게 덤비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나’는 장인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온 것이므로 ‘나’가 점순이와의 성례를 바라는 것을 허영심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의 허영심으로 해학성이 유발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풀이 |** 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어수룩한 말과 행동을 하는 ‘나’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 ② ‘나’와 장인의 싸움이 어린아이들의 싸움같이 유치하고 과장되게 묘사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 ③ 상황이 다급해지자 ‘나’가 장인을 ‘빙장님’에서 ‘할아버지’로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웃음을 유발한다.
- ⑤ ‘이까진 놈의 장인님’과 같이 비속어와 존칭어를 함께 사용하거나 장인을 ‘빙장님’이라고 부르다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등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19 장인에게 매를 맞은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며 반항한 것은 장인에게 진짜 화가 난 것이라기보다는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점순이에게 자신이 잠자코 매를 맞기만 하는 바보가 아님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이는 ‘나’가 점순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20 몽태와 점순이의 충동질로 결국 ‘나’는 장인과 희극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고, ‘나’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세계 잡아당기고 있는 장인에게 다급하고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장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장인의 이런 행동에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라고 하며 장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21 이 글은 ‘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러운 싸움(절정) 사이에 두 인물이 화해하는 모습(결말)을 삽입하고 있다. 이렇듯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한 것은 희극적인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살리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이다.

- |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서술자인 ‘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사건을 이어 나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②, ③, ④ 이 글은 어리숙하고 순진한 ‘나’가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독립적이거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소설의 구성 방식

평면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하는 방식.
입체적 구성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함.
액자식 구성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옴니버스식 구성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각각 다른 독립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피카레스크식 구성	동일한 인물이 독립된 이야기에 등장하여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22 장인과의 싸움이 끝나고 난 뒤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담배도 주면서 위로와 회유를 한 사람은 장인이다.

23 ‘나’는 예상치 못했던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기운이 빠지고 당황해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강한 자들의 싸움에 끼어 약자가 피해를 볼 때 쓰는 속담이다.

- | 오답풀이 |** ① 가재는 게 편이다: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감싸 주기 쉽다는 뜻.
- ②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 정이 더 가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뜻.
- ③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잘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쓰는 말.
- 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열 길이나 되는 깊은 물 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

꼭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14~119쪽

- 01 ⑤ 02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03 ③ 04 ③ 05 데릴사위 06 ④ 07 ② 08 ⑤ 0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① 14 점순이가 성례를 원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갑다. 15 ② 16 ③ 17 다음 데릴사위를 들려면 아직 몇 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장인은 올 가을에 ‘나’와 점순이를 성례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18 ① 19 ② 20 ⑤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서술자인 ‘나’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리판단이 미숙하고 어수룩한 성격으로 인해 ‘나’가 사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2 ‘나’가 장인과 갈등하는 원인은 장인이 ‘나’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더 이용하기 위해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원인을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썼다.	☐

03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 아니냐.”를 통해 ‘나’가 열심히 일하면 장인이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4 장인이 ‘나’를 처음부터 점순이의 짝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장인이 욕을 잘해서 아이들까지도 그에게 ‘욕필이, 욕필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② ‘나’는 명목상 데릴사위지만, 사실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머슴 취급을 받는다. 즉, 장인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나’를 데릴사위로 삼고 있다.

④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에서 ‘나’가 농사일을 안 하고 가 버릴까 봐 눈치를 보는 장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 다든가 하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등에서 장인이 마름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작인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나’는 데릴사위라는 명분으로 점순이와의 성례를 위해 삼 년 칠 개월 동안 사경 없이 일만 하였다.

06 〈보기〉는 ‘지주-마름-소작인’의 구조를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마름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그들의 횡포가 심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장인 집 외양간에 눈깔 커다란 황소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오는 것’은 마름인 장인에게 바치는 소작농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마름의 횡포

마름은 부재지주의 대리 감독인으로서, 토지가 멀리 있거나 많이 있는 지주들을 대신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추수기의 작황을 조사하고, 직접 각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거둬들여 일괄해서 지주에게 상납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였다. 마름은 추수기의 소작료 징수만이 아니라, 소작권의 박탈, 작황, 소작인의 평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소작인을 임의로 교체시키거나, 무고한 소작인을 농지에서 내쫓고 그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리대금업까지 겸해 춘궁기 등에 곤경에 처한 소작인에게 식량이나 금전을 빌려주고 고리의 원리금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07 ㉠에서 ‘왜 또 이래.’라는 말을 통해 ‘나’의 꾀병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나’가 꾀병을 부리며 일을 하지 않자 장인이 핀잔을 주는 말이다.

▶ 오답풀이 | ① ㉠: 처음 계약은 점순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를 하되, 성례를 하기 전까지는 ‘나’가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딸이 자라는 대로’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계약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태도의 변화를 갖게 된다.

③ ㉢: 장인은 ‘나’가 아프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타박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장인은 ‘나’의 건강보다 ‘나’가 일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 장인에게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은 명이 짧다는 말을 통해 장인에 대한 동리 사람들의 부정적 평판을 알 수 있다.

⑤ ㉤: 곧 농사일이 바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장인은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08 ‘안달재신(㉡)’은 몹시 속을 태우며 여기저기로 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09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시작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점순이와 ‘나’가 이성애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연정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와 점순이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봄’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계절이자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다.

② (가)에서 ‘나’가 봄기운에 취해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것과 (나)에서 점순이가 ‘나’에게 성례를 재촉하는 것을 통해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분위기를 알 수 있다.

④ 봄은 농사일이 바빠지면서 장인에게 ‘나’의 노동력이 필요한 계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은 봄에 성례를 시켜 주지 않으려고 한다.

⑤ ‘봄’을 두 번 언급한 것은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봄이 올 때마다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10 (다)에서 '나'는 장인에게 사경을 요구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라)에서 '나'는 농사일이 바쁠 때 달아나면 손해죄로 징역을 간다는 구장의 말을 듣고 달아날 생각이 사라져 다시 일하러 간다.

| 오답풀이 | ① (다)에서 구장이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비면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로 보아 구장은 '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구장은 장인에게 '나'를 성례시켜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점순이가 자라지 않았다는 장인의 말에도 동조하고 있다.

③, ⑤ (다)에서 '나'는 구장을 찾아가면 성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라)에서 장인이 낫속말로 구장에게 뭐라고 한 뒤에 구장이 장인 편을 들며 '나'를 협박하자 '나'는 성례에 대한 기대가 꺾여 돌아온다.

11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 [A]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어 서술한 것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심리를 모두 서술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시점의 종류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함.
	1인칭 관찰자 시점	보조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함.
3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함.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사건의 속사정, 인물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하여 전달함.

12 괄호 속의 내용은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다. 이 글에서 괄호 속의 내용은 정보를 보충해 주고, 서술자 '나'의 속마음과 결마음을 동시에 보여 주며, 서술자 '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보여 준다. 이를 통해서 독자는 서술자의 심리에 더 동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해학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13 '나'가 소에게 화를 낸 것은 발일이 잘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14 “성례시켜 달라지 뭐 어떡해.”라고 말하며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는 점순이를 보고 '나'는 당황하여 점순이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다가 점순이가 며칠 사이에 부쩍 자란 듯싶어 반가워한다.

따라서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당황하면서도 반가워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성례', '적극적'이라는 말을 넣어 '나'의 심리를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썼다.	☐

15 이 글은 역순행적 방식으로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나'와 장인의 희극적인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부각한다.

16 '나'는 성례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장인과 함께 구장에게 다녀왔다(ㄷ). → 그날 저녁 '나'는 몽태네 집에 마실을 갔다(ㄱ). →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가져온 점순이에게 구장에게 다녀왔음에도 성과가 없다고 타박을 들었다(ㄴ). → 이에 자극을 받은 '나'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 장인과 몸싸움을 했고 이를 장모와 점순이가 봤다(ㄷ). → 장인과 싸워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장인의 위로와 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는 말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ㄹ).

17 장인은 셋째 딸이 데릴사위를 맞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둘째 딸인 점순이를 성례시킬 생각이 없으므로 가을이 되더라도 '나'에게 핑계를 대서 성례를 미룰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썼다.	☐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썼다.	☐

18 몽태는 '나'의 장인에게 미움을 사서 소작하던 땅을 떼었기 때문에 장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에서 몽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연신 화를 내며 장인에 대한 자신의 분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9 ㉠에서 '나'는 장인의 수업을 잡아채라는 점순이의 말대로 했음에도 자신을 탓하는 점순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멍하니 정신을 잃은 것을 뜻하는 망연자실(茫然自失)이 '나'의 반응과 어울린다.

| 오답풀이 |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

③ 수수방관(袖手傍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④ 격세지감(隔世之感):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이르는 말.

⑤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것을 이르는 말.

20 <보기>는 「홍보전」의 일부로, 인물들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매품을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이에 맞지 않게 서로의 가난을 자랑해 보자는 말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매품을 팔기 위해 온 인물이 자신의 가난을 과장하여 드러내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가 점순이와의 성례를 두고 교활한 장인과 벌이는 갈등을 희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한국 문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현대 소설로 음악적 율격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보기>는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한 판소리게 소설이다.

② 이 글과 <보기>의 인물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나’는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과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보기>의 인물들은 매품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가난을 자랑하고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풍자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장인의 교활함이나 마름으로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는 장인을 희화화함으로써 독자가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이 글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만, <보기>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03 ㉠은 봄의 계절적 기운이 ‘나’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인 봄은 ‘나’가 점순이에 대해 이성으로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04 마을 사람들이 ‘봉필’이라는 장인의 이름을 욕을 잘 한다는 이유로 ‘욕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언어유희(말장난)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 오답풀이 | ① ㉠: 장인이 ‘나’가 밥을 먹는 것으로 걱정을 할 만큼 몰인정하고 인색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 ‘나’와 장인이 맺은 계약의 내용으로, ‘나’를 공짜로 부려 먹으려는 장인의 의뭉한 속셈이 담겨 있다.

③ ㉢: ‘나’는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비속어(이놈)와 존칭어(님)를 동시에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⑤ ㉤: 본래 마름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털이 북슬북슬한 개 같이 생겨야 한다는 것으로 볼 때, 평소에 마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5 ‘나’는 점순이가 썩 예쁘지는 않지만, ‘나’의 눈에는 참외 중에 제일 맛있고 예쁜 ‘감참외’ 같다고 하며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06 <보기>에서 지주는 소작농으로부터 수확물의 55~60%를 징수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작농인 동리 사람들은 장인에게 바치는 뇌물 외에도 지주에게 수확물을 바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⑤ 동리 사람들은 소작권이 없기 때문에 지주의 대리인인 장인에게 굶신거린다.

② ‘나’가 장인과 맺은 계약은 데릴사위 계약이지 소작 계약이 아니다.

③ 장인은 마름으로,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으로 피해를 본 계층은 소작농이다.

07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② 이 소설은 작품 속 인물이자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서술하고 있다.

③ 주로 고전 소설에 나오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④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 하나이다.

08 이 소설은 절정 사이에 결말을 삽입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해 ‘나’와 장인이 싸우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이는 ‘나’와 장인의 싸움을 극대화하여 작품의 긴장감과 해학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20~123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감참외 06 ④ 07 ①
08 ⑤ 09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10 ⑤ 11 ②
12 ②

01 (라)에서 ‘나’는 ‘그 전날’ 봉우리 화전밭을 갈면서 춘정을 느끼는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 이 글에는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역전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참고 자료

의식의 흐름 기법

서술자의 내면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서술하는 구성

예 이상의 「날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02 (다)의 내용으로 볼 때 장인은 욕을 잘하고 손버릇이 나쁘며 마름으로서 동리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따라서 장인이 동리 사람들을 지극하게 살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점순이는 구장한테 가서도 성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온 '나'가 성례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장인의 수염이라도 잡으라고 '나'를 쏘아붙인다. 이러한 점순이의 충동질은 '나'가 장인과 희극적인 싸움을 벌이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10 <보기>는 해학의 개념과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점순이가 사위인 '나'에게 장인인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11 ㉠은 '나'를 충동질한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드는 대목으로,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점순이는 성례를 하기 위해 '나'를 다그친 것이지 정말로 장인과 싸우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점순이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인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점순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맞는 순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때리는 '나'를 보고 '나'와의 성례를 포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2 <보기>에서 홍보는 매품을 팔러 갔다가 매도 못 맞고 돌아왔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있다. 이에 홍보의 아내는 홍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24~131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 ㉠: 중장의 삶의 모습 집약 • 동일한 구조의 반복에 따른 효과: 구조적 안정감 및 운율감 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10 ① 11 ⑤ 12 ② 13 ①
14 ④ 15 ① 16 ④ 17 ① 18 ① 19 ② 20 ③ 21 ④
22 ④ 23 ⑤ 24 ④ 25 ③ 26 ②

01 (가), (나) 모두 이별의 상황은 드러나나 시적 화자가 이별의 원인을 찾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가)의 시적 화자는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쫓아가겠다고 하며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의 시적 화자는 말없이 임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나)는 4연에서 인고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가), (나) 모두 사랑과 이별에 따른 정한을 다루고 있으므로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서경', '대동강', (나)는 '영변'을 언급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02 (가)의 갈래는 고려 가요이다. 고려 가요는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어 전승된 고전 시가로,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민간에서 구전된 만큼 우리말 형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삶에 대한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고려 가요에 후렴구가 발달하였지만, 후렴구가 반드시 주제를 집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보기>의 '예'는 이승을 뜻하지만 누이가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음에 머뭇거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예'는 누이가 시적 화자와 헤어지는 공간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예'와 관계 깊은 것은 (가)에서 시적 화자와 임이 헤어지는 공간인 '대동강'이다.

| 오답풀이 | ① '소성경'은 화자의 삶의 터전으로 시적 화자가 사랑을 하는 공간이다.

② '바회'는 사랑의 장애물, 시련을 뜻한다.

③ '사공'은 임과 헤어질 때 대동강에 배를 내려놓은 사람으로, 시적 화자가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존재이다.

⑤ '고졸'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가리키는 것으로, 임이 만날 수 있는 다른 여인을 뜻한다.

참고 자료

「제망매가」 개관

갈래	10구체 향가
성격	서정적, 추모적, 애상적, 종교적
소재	누이의 죽음
주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종교적 극복 의지
특징	- 비유, 상징과 같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높임. -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며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함.

04 시적 화자가 뿌린 진달래꽃은 자신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뜻하는데, 이것을 밟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희생적인 태도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5 (나)에서는 의성어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과 같은 3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②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과 같이 7·5조의 음수율을 지니를 알 수 있다.

- ③ 1연과 4연을 통해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1, 2, 4연에서 ‘-우리다’의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06 (나)의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가 임이 가실 길에 뿌리고자 하는 대상으로, 시적 화자의 분신,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 임에 대한 헌신과 희생, 순종을 뜻한다. ③의 ‘뿔버들’은 시적 화자가 임에게 보내는 대상으로, 시적 화자는 임이 주무시는 창 밖에 뿔버들을 심어 두고 보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뿔버들에서 잎이 나면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즉 ‘뿔버들’은 시적 화자의 분신,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므로 ‘진달래꽃’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조의 시적 화자는 쟁반에 담긴 홍시를 보고 이를 가져가도 반가워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현실을 서러워하고 있다. 즉 ‘조홍(朱紅)감’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②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동지(冬至)ㅅ’들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기간으로,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④ 이 시조는 매화를 의인화하여 눈이 올 때 피겠다는 약속을 지킨 매화의 고결한 성품,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⑤ 이 시조는 눈서리를 맞고도 땅속까지 뿌리를 곧게 뻗은 술(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07 ㉠은 임이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갓고리이다’는 건너편 꽃을 꺾을 것이라는 뜻으로 임이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시적 화자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알 수 있다.

08 (가)에서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넋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못할 것가’와 같이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의 종장에서 농부가 하는 일을 열거하여 농부의 하루를 보여주고 있으나, 시적 화자는 농부가 아니라 농부를 관찰하는 사람이다.

⑤ (나)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게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에서 청각적 심상이, (다)는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에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09 종장은 종장에 언급된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집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마다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썼다.	☐
동일한 구조의 반복에 따른 효과를 썼다.	☐

10 (가)의 시적 화자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주고 있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은 자신의 불성(佛性)을 깨닫고 삶과 죽음을 초월함으로써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을 이르는 말로, 시적 화자의 태도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단표누항(簞瓢陋巷)’과 ‘단사표음(簞食瓢飮)’은 소박한 삶의 모습을 뜻하고 ②, ④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도를 즐긴다는 뜻이다(③). ‘연군지정(戀君之情)’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움, 충성을 말한다(⑤). 이들은 모두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떠올리고 있는 (가)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관계 깊은 한자 성어이다.

11 (나)에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나)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가사로, 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시적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 오답풀이 | ①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있고 / 녹양방초(綠樣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에서 대구를 사용해 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게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에서 새를 의인화하여 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③ 대조적인 소재인 ‘홍진(紅塵)’과 ‘산림’을 통해 시적 화자가 봄을 완상하는 현재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현대어로 풀어 쓰면 ‘농촌에 봄이 오니 이 몸이 할 일이 많구나./꽃나무는 누가 옮길 것이며 약초를 심은 밭은 언제 가나./아이야! 대나무를 베어 오너라 샷샷 먼저 엮으리라.’와 같다. 시적 화자는 봄이 와서 할 일이 많지만 순서를 정해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는 농부의 하루 일과를 열거하고 있고, <보기>는 해야 할 농사일이 많음을 확인하고 순서를 정해 일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기>에서 농사일이 밀려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다)와 <보기> 모두 농사일에 관한 상황을 보여 준다.

③ (다)는 점심 도시락을 먹고 ‘곰방대’를 사용해 앞담배를 피우고 ‘꽃 노래’를 하다 조는 모습에서 한가로움이 나타나고, <보기>는 ‘꽃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고, ‘약초 심은 밭’을 갈아야 하는 일정을 말하는 부분에서 해야 할 농사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④ 논밭을 갈아 김을 매는 것은 여름에 하는 농사일이므로 (다)의 계절은 여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보기>의 계절은 전원에 봄이 온다는 표현에서 봄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종장에서는 일을 마치고 농부가 '긴 소리 짧은 소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기>의 종장에서는 아이를 불러 샷갓을 엮을 것이라고 하는 데서 일을 시작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13 ④는 사대부들이 안빈낙도하는 자연의 공간으로, 만족스러운 삶이 임금의 덕분임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 오답풀이 | ② ④는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공간이지만, 시적 화자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⑥는 고된 농사일을 하는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④는 감상을 하며 즐기는 공간이지만 ⑥는 생활의 공간이다.

⑤ ④는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지만 ⑥는 삶의 터전이기에 때문에 속세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14 ②은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을 의미한다. 눈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 입었던 것으로,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사용했다.

15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의 '나'가 겪은 일들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② 이 소설은 여러 명의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 소설은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6 이 글에는 장인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장인은 인색한 성격으로 머슴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나'가 치성을 드리는 모습에서 성례를 빨리 하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또한 (다)에서 점순이는 '나'가 성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충동질하고 있다.

② (나)에서 '나'는 모를 밟다가 성례 문제가 생각이 나서 빈정대 상해 께병을 부리고 있다.

③ (가)에서 '나'는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은 이유를 점순이가 물동이를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고 하였다.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성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점순이의 일을 대신해 준 것이다.

⑤ (다)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테냐고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였다. '나'에게 성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바라는 마음을 보인 뒤 쑥스러워서 도망을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나)에서 '나'가 께병을 부린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모를 밟다가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일하는 것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나'는 일을 하는 목적이 없어졌다고 생각되어 께병을 부린 것이다.

| 오답풀이 | ② '나'는 점순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있다. (나)의 시작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도 키가 자라지 않는 점순이를 보고 속상하여 '나'가 장인과 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장인은 배가 아프다는 '나'의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친 것으로 보아 무자비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와 점순이는 내외하느라 떨어져서 말한다. 하지만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등의 말로 보아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성례를 재촉하는 점순이의 말에 얼떨떨해하면서도 점순이가 며칠 내에 자란 것 같아서 반가워하고 있다.

18 (가)는 주로 '나'의 무지와 어리숙함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과 비속어의 사용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농촌'은 이 글의 배경으로, 그 자체로는 해학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② '제-미, 키두!'에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비속어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③ 사람을 동물과 비교하는 '나'의 어리숙함이 웃음을 유발한다.

④ '나'가 점순이가 키가 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 엉뚱한 원인을 찾아내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⑤ 떡을 놓고 소원을 비는 일반적인 처성의 순서를 뒤바꿔서 행동하는 '나'의 어수룩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19 '나'는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점순이의 키가 자라길 바라는 것이다. 점순이의 키를 보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는 점순이가 며칠 내에 속으로 자란 듯싶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가워하고 있다. 즉 자신에게 성례를 얘기하는 점순이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점순이는 현재 '나'와 성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키를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⑤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이유로 성례를 미루고 있지만 성례를 미루고 있는 근본적인 까닭은 '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0 '나'는 나무를 하러 다니다가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으며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제물을 바치고 고사를 지내는 문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남녀 사이에 내외를 해야 한다는 장인의 말에 '나'와 점순이가 이야기를 할 때 마주 보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② '나'가 점순이네 집에서 데릴사위로 지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여러 사람이 매를 대신 맛을 기회를 얻기 위해 가난의 정도로 우열을 가리고, 매를 맞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아쉬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홍보도 가난하여 매를 대신 맛과 돈을 벌고자 하여 갔는데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온 것에서 알 수 있다.

21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어리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서술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 오답풀이 | ① 당대 사회의 모습인 마름과 소작인, 데릴사위 제도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② 구장과 장인의 행동을 회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성례를 시키라는 구장의 말에 장인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나, 성례를 두고 대화를 하는 장인과 ‘나’의 모습에서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⑤ ‘나’의 어수룩함과 장인의 교활함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참고 자료

미성숙한 서술자, 믿을 수 없는 화자

- 인칭 시점 중 서술자 자신이 서술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 평가가 미성숙한 경우 혹은 서술자의 무지 등으로 잘못되거나 불안하게 서술하는 ‘나’를 말한다.
- 대체로 순진하거나 어린아이일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화자와 외부의 세계가 합치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서술자의 장치를 통해 작품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2 이 글에서 사용된 괄호는 서술자의 속마음을 나타내거나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독자는 어리숙한 서술자를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하며 읽을 수 있지만 서술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기 어렵다.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펍 기뻐했지)’에서 서술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할 수 없지만 독자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서술자가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몽태와 ‘나’의 대화를 요약한 (나)의 내용을 참고할 때, 장인은 셋째 딸의 나이가 어려서 데릴사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나’와 다툼이 있었음에도 ‘나’를 달래어 일을 시킬 속셈으로 올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고 둘러댄 것이다. 올가을에 정말 성례를 시켜준다는 의미보다는 ‘나’를 회유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24 ㉞은 점순이가 ‘나’와 장인의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나’가 눈치채고 점순이에게 자신이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점순이가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구장은 ‘나’의 편을 들어 주면서도 점순이의 키가 작아 성례를 시킬 수 없다는 장인 말에 동조하고 있다.

② 장모도 키가 작는데 성례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언급하여 점순이의 키가 작기 때문에 성례를 하지 못한다는 말에 반박하고 있다.

③ 몽태가 장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로서 소작인인 몽태가 마름인 장인에게 더 이상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⑤ 장인과 몸싸움을 한 뒤에 쫓겨날 줄 알았지만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담배를 주고 가을에 성례를 시켜준다고 했기에 ‘나’는 장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25 ㉞은 ‘전부, 모두 다’라는 뜻이다.

| 오답풀이 | ① ㉞은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을 뜻한다.

② ㉞은 ‘공연히, 실속이 없이 건성으로’라는 뜻이다.

④ ㉞은 ‘논밭들이 두드룩하게 언덕진 곳’을 뜻한다.

⑤ ㉞은 ‘매우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뜻한다.

26 이 작품은 결말을 절정 앞에 배치하여 ‘나’와 장인의 싸움이 지나는 해학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라)에서는 사건 순서의 뒤바꿈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나’와 장인이 다투고 갈등하는 상황에 있기는 하나 비극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해학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5. 서로 다른 시선, 함께 찾아가는 삶

(01) 주제 통합적 읽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_김선화·신효진

'합리적 소비'의 기준 _황장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_최원형

◆ 문제로 확인

본책 137~143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⑤ 10 ⑤ 11 ⑤ 12 글쓴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끼니 해결과 회의 중 음료 주문 같은 불가피
한 상황을 겪어 실천에 실패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락과 음료를 미리 준비하는 방안을 떠올렸다.

01 ㄱ. (가)에서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소비자의 구매 활동'으로 윤리적 소비의 의미를 소개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ㄴ. (라)에서 '그렇다면 윤리적 소비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
윤리적 소비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
하여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ㄷ. (다)에서 영국의 가구당 윤리적 소비 관련 물품 구입 지출 증가
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영국에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오답풀이 ▶ ㄴ. 이 글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등장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ㄷ. 이 글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거나 절충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2 (가)에서 윤리적 소비는 재화의 품질이나 대중성보다는 소비
자가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구매 활동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재화나 대중적인 상품
을 구매하는 소비 행동은 윤리적 소비와 거리가 멀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나 공정 무역 제품 구
매 등을 예로 들어,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을 구
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윤리적 소비라고 설명하였다.

③ (나)에서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
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가)에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의 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나)에서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윤리적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
명하였다.

03 (라)에서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라)에서 합리적 소비는 취향, 가치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가)에서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경제적 합리성
과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다)에서 최근에는 제품의 가격보다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
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4 이 글에서는 10명 가운데 6명이 이예스지 경영을 실천하는 제
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여 최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
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에서 최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가
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라)에서 최근의 소비 경향은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경향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나)에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취향을
충족하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심리적 만족감이 극대화된다고 주장
하며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 구매를 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예스지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연관성이
낮다.

⑤ (나)에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충족하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심리적 만족감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05 (다)에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
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에 대한 반동, 즉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겼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가 몇 년 사이에 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업들이 소
비를 부추겨 매출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기라고 하였다.

⑤ (다)에서 세이모어 번스타인과 사사키 후미오 모두 집 내부가 소
박하다고 하였다.

06 (가)는 글쓴이가 일상적인 저녁에 우연히 본 크리스마스트리 불빛으로부터 얼마 전 들렸던 거리를 떠올리는 부분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다루는 소비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다.

- | 오답풀이 |** ① 불필요한 소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② 연말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소비의 효용과 가치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은 없다.
 ⑤ 째깍한 겨울 저녁과 크리스마스트리 전구가 대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소비의 양면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07 (다)에서 글쓴이는 세이모어가 불필요한 물건 없이 소박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고귀한 삶의 방식’이라 예찬하며 감동하고 있다.

08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하다.’는 ‘청빈(淸貧)하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소박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이다.

09 (바)에서 글쓴이는 현대의 편리하고 풍족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하며, 지속 가능한 삶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 오답풀이 |** ① (마)에서 글쓴이는 한 달에 하루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로 정하고 실천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바)에서 글쓴이는 세이모어의 삶이 더 빛나는 것은 그의 철학이 삶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바)에서 글쓴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려면 도시락이나 가방과 같이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겨야 함을 깨닫고 있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찬장 속 많은 접시 중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10 (바)에서 글쓴이는 물건이 흔치 않던 과거의 삶과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비교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오답풀이 |** ① 글쓴이는 현대인의 소비 습관을 냉소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지만, 대화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지만, 다양한 비유법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 객관적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주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수필의 개념과 특성

개념	글쓴이의 경험이나 그것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유롭게 표현한 산문 형식의 글
특성	• 자기 고백적이고 주관적임. • 형식이 자유롭고 소재나 내용에 제한이 없음. •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 인생관이 잘 드러남. •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쓸 수 있음.

11 글쓴이는 풍족한 삶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지속 가능한 삶’이 들어 가야 한다.

12 글쓴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끼니 해결과 회의 중 음료 주문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겪어 실천에 실패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락과 음료를 미리 준비하는 방안을 떠올렸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겪은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알맞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꼭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144~149쪽

01 ③ 02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첫 단계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한 해진 이유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④ 16 ⑤ 17 ㉠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소비를 부추겨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은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1 (다)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확산에 대해 설명하며 그 근거로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중심 내용은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보다는 ‘윤리적 소비의 확산’이 적절하다.

- |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예로 들어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였다고 하며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긍정적 구매 행동과 부정적 구매 행동 등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윤리적 소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그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02 (라)에서 글쓴이는 윤리적 소비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첫 단계를 알맞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이 글은 친환경 제품 구매나 공정 무역 제품 구매, 지속 가능한 구매 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실천 방법 등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에 윤리적 소비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과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을 뿐,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는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관점만 드러나 있을 뿐, 윤리적 소비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나 절충안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다)에 제시된 통계 자료는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흡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04 (나)에서 그동안 소비자가 주로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서만 역할을 하였던 것과 달리,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윤리적 소비는 대안적 소비 활동이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마)에서 소비에는 사회적 쟁점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의 변화를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긍정적 구매 행동 뿐만 아니라, ‘부정적 구매 행동’으로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윤리적 소비에 관련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영국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05 이 글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배경과 개념, 윤리적 소비를 실

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소비가 확산되는 추이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와 (나)에서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며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④ (마)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6 이 글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는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활동이자 대안적 소비 활동,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다. 따라서 소희가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친환경 소재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소희는 환경 보호라는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였다.

② (라)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구매는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의 실천을 기반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희가 평소 저렴한 가격의 옷을 구매한 것에서는 지속 가능한 구매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③ <보기>에 따르면 소희는 미디어를 통해 패스트 패션의 문제를 알게 된 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게 되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소희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윤리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빠른 상품 회전율, 최신 유행 반영,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패션 사업을 의미한다. 일반 패션 업체들이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는 것과 달리, 패스트 패션 업체는 1~2주 또는 며칠 단위로 새로운 상품을 빠르게 선보인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해 옷을 제작하여 매장에 진열하는 것이 강점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재고 부담을 줄이고 상품의 희소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07 '긍정적 구매 행동'은 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것과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 ㄱ. 동물 실험을 하는 화장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므로, '부정적 구매 행동'에 해당한다.

ㄴ. 아동 노동을 이용하는 초콜릿 생산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부정적 구매 행동'에 해당한다.

08 이 글에서는 기존의 합리적 소비의 개념이 주로 경제적 합리성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이와 같은 기준으로만 합리적 소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 가치관,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에서는 기존의 관점과 달리 오늘날에는 다양한 기준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 소비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을 뿐, 합리적인 소비 생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없으며, 글쓴이가 자신의 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소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글쓴이의 합리적 소비 경험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이 글에서는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를 대조하지 않았다.

09 (가)와 (다)에서 글쓴이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자신의 개성과 취향,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진 이유를 알맞게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추어 썼다.	☐

10 이 글에서 글쓴이는 '합리적 소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향, 가치관,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③ 글쓴이는 기존에는 '합리적 소비'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각자의 개성, 취향,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는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글쓴이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유로 요즘 사람들이 소비할 때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를 중시한다는 점(ㄷ)과 최근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ㄴ)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ㄱ. 이 글에서 현대인의 경제적 능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ㄴ. 글쓴이는 경제적 합리성, 즉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만을 합리적 소비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인이 소비 활동 시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합리적 소비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

ㄷ.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강조하다 보니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눈총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내용이 (가)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현대인이 이를 개의치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2 ④와 ⑥의 앞 문장에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경제적 합리성(가격)'만을 기준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것이다.

13 〈보기〉의 자료는 영국에서 가구당 윤리적 소비 관련 물품 구입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최근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 미디어에서 합리적 소비를 강조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보여 주는 〈보기〉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② (가)에서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보여 주는 〈보기〉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④ (나)에 따르면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은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에 중점을 둔 소비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보여 주는 〈보기〉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⑤ (나)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한 제품의 디자인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에 중점을 둔 소비 활동의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보여 주는 〈보기〉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14 (라)에 따르면 글쓴이는 점심을 사 먹고 회의 중에 음료를 구매하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는 데 실패하였다.

고난도 **업** 소단원 심화 문제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글쓴이는 저녁에 창 너머를 내다보다 어느 집 거실의 크리스마스트리를 발견하고는 얼마 전 들렀던 연말 분위기의 거리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요약이다.

② (나)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요약이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세이모어와 사사키 후미오의 집,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관한 말을 통해 소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므로 적절한 요약이다.

⑤ (마)에서 글쓴이는 지금의 편리하고 풍족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를 일이라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요약이다.

15 ㉠은 <보기 1>과 달리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좀 더 부드럽게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ㄷ). 또한 이 글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세이모어를 다시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ㄴ).

| 오답풀이 | ㄱ. ㉠에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ㄷ. 독자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으로 '풍족한 삶'을 제시한 것은 <보기 1>이다. 이 내용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16 이 글에서 글쓴이는 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세이모어의 소박한 삶처럼 필요한 소비만 하자는 내용이 글쓴이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글쓴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통해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자고 하였으므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소비하는 삶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자고 하였으므로,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자고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소비를 바람직하다고 바라보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글쓴이는 사사키 후미오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삶보다 편리한 소비 생활을 유지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7 (나)를 참고할 때, ㉠은 연말 분위기를 이용해 기업들이 소비자의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은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블랙 프라이데이'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의 목적을 소비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알맞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1 ① 02 ④ 03 ② 04 ① 05 (다)의 글쓴이는 소비의 절제와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요노'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06 ③ 07 ⑤ 08 ⑤ 09 글쓴이는 찬장의 수많은 그릇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릇은 몇 개 되지 않음을 발견한 후,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 글쓴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해 본 후,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10 ③ 11 ④

01 (가)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가치 있는 소비라고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개인의 취향,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비가 합리적 소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에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가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다)는 모두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해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오답풀이 | ②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다)는 지속 가능한 삶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는 합리적 소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가)와 (다)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다)에서 소비 활동이 주는 편리함과 풍족함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와 (나)는 주로 가치 있는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소비자의 개성과 취향을 합리적 소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와 (다)는 윤리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비교하기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가)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였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나)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비가 합리적 소비이다.
(다)	최소한의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소비에 대한 주제 통합적 읽기

소비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 '최소한의 소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소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소비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02 (나)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최근의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다)는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한 소비자들의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통계 자료를, (나)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그렇다면 윤리적 소비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③ (나)는 개성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소비 경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다)는 주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⑤ (다)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나, (나)에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나타나 있지 않다.

03 (나)에서 글쓴이는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도 합리적 소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글쓴이는 ‘그동안 소비자는 주로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서만 역할을 하였’으나, ‘소비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 즉 윤리적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경제제적 합리성과 같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편리하고 풍족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소비하는 삶보다 지속 가능한 삶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과거에 붓짐을 들고 다니던 생활을 언급하며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기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4 (가)에서는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 즉 윤리적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② 네 번째 문단에서 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불매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③ 네 번째 문단에서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④ 첫 번째 문단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⑤ 두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서 윤리적 소비에 동참하는 것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러한 윤리적 소비가 여러 사회적 쟁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05 <보기>의 ‘요노’는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최소한의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다)의 글쓴이가 <보기>의 ‘요노’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의 글쓴이가 <보기>의 소비 형태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정확하게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추어 썼다.	☐

06 (다)의 글쓴이는 꼭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글쓴이는 최소한의 소비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에는 동의하지만, ㄷ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7 (가)의 글쓴이는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에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투표와 같은 힘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즉 투표자가 어떠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비자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소비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③, ④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비의 힘에 관한 서술이 아니므로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서는 소비자의 소비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뿐, 소비가 개인의 권리임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08 ㉠에는 소비할 때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보다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를 더 중시하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가격보다 디자인을, 품질보다 자신의 개성 발현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ㄱ과 ㄴ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 오답풀이 | ㄱ.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제품 구매 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제품 구매 시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눈총을 받지 않을 소비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다)에서 글쓴이는 찬장의 많은 그릇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릇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을 통해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상호 연관성을 지니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0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충족하는'을 '보여 주는'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부합하다'는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라는 의미이므로, '부합하지'를 '들어맞지'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확산되다'는 '흩어져 널리 퍼지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확산되면서'를 '퍼지면서'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④ '고려하다'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라는 의미이므로, '고려한'을 '헤아린'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⑤ '막론하다'는 '이것저것 따지고 가려 말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막론하고'를 '따지지 않고'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11 <보기>는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보다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에서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를 중시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여 주는 예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②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 행동은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와 거리가 멀다.
 ③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 행동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행동일 뿐, 이를 자신의 가치관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소비의 예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다)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삶은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삶을 의미하므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와 거리가 멀다.

02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사실 사용을 위한 협상

꼭 짚어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156~159쪽

01 가사실 공간, 동아리 지원금 02 ① 03 ⑤ 04 ⑤ 05 ①
 06 ④ 07 ② 08 ⑤ 09 ③ 10 ③ 11 ⑤

01 <보기 1>을 통해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관이 가사실 이용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을 얻기 위해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상의 쟁점은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02 협상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이다. 시작 단계는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조정 단계는 양측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해결 단계는 대안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는 단계이다.

03 ㉠에서 '두 동아리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 것은 협상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며 다른 협상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안을 묻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도서관은 ㉠에서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저조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이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도서관은 ㉠에서 가사실 공간을 다른 동아리가 사용하게 될 경우,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③ 제과·제빵 동아리 부장은 ㉡에서 빵을 굽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의 실습실을 구해 주실 때만 겨우 실습을 할 수 있는 동아리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④ 제과·제빵 동아리 부장은 ㉢에서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얻게 될 이익으로 '동아리 구성원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과 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04 동아리 부장은 ㉢에서 제과·제빵 동아리가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음료도 함께 판매'함으로써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사실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도서부가 가사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걱정한 것은 맞으나 동아리 부장이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또한 이는 ㉔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동아리 지원금이 부족한 현실은 ㉔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③ 도서부가 가사실 공간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므로, 학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㉔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이 협상은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 중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므로, 제과·제빵 동아리가 학생회와 함께 가사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협상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05 가. 사서 교사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였으므로 가사실 공간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지도 교사는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가 가사실을 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도서부에서 가사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며 가사실 공간의 사용 시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다. 동아리 부장은 상대측이 제시한 정보의 출처를 물으며 추측성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있을 뿐, 협상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도서부장은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할 수 있다면 제과·제빵 동아리와 의논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재료로 손수 만든 간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상대측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06 [B]에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며 정보의 출처를 묻고 있을 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 ① [A]에서는 “동아리 지원금이 오븐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하고 있다.

② [A]에서는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밀가루도 날리고 지저분해질 것이 뻔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B]에서는 “오븐을 사기에 동아리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서 들었나요? 정확한 정보인가요?”라고 물으며 상대측이 제시한 정보의 출처를 물어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있다.

⑤ [A]와 [B] 모두 협상의 쟁점이 되는 가사실 공간을 스터디 카페로 만들어 함께 사용하는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07 ㉔은 가사실 공간을 스터디 카페로 만들자는 제안이 실현되면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㉕ 역시 동아리 지원금으로

제과·제빵 동아리가 오븐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실현되면 학생들에게 건강한 재료로 손수 만든 간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㉔과 ㉕ 모두 상대측 발언에 활용된 정보의 신뢰성, 즉 출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③ ㉔과 ㉕ 모두 상대측의 제안을 검토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상대측에게 자신의 제안을 다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④ ㉔과 ㉕ 모두 자신의 입장이 상대측에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⑤ ㉔과 ㉕ 모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지 않다.

08 책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은 음료이며,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만든 간식은 이용권을 모은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지도 교사는 이를 통해 잠재적 고객들의 평가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도 말하였다.

09 이 대화에서는 가사실 공간을 책 카페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서 교사는 책 카페를 꾸미는 방안을 공모하자고 제안하였을 뿐이다. 사서 교사가 책 카페를 꾸미는 방안을 공모했을 경우에 도서부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밝힌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사서 교사는 지도 교사가 제기한 비용 문제에 대하여 “책상 배치를 바꾸고 학생들과 단장하면 독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동아리 부장은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가 아닌 책 카페로 만들어 함께 사용하자는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④ 지도 교사는 “도서관 이용률도 높이고, 제과·제빵과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들의 평가도 받아 볼 수 있으니 참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하며 책 카페 운영을 통해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⑤ 동아리 부장은 “책을 많이 대출하거나 독서 토론에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이용권을 모은 친구들에게 특별 간식을 제공하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책 카페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도서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0 ㉔은 학생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회가 책 카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도서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㉔은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양보할 수 있는 지점과 관련이 없다.

② ㉔은 책 카페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도서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므로, 상대측의 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은 도서관이 책 카페 운영에 합의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자신의 대안을 상대측이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⑤ ㉠은 상대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측의 우려를 고려한 대안으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11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공용 주택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요구 사항을 말할 수 있다. <보기>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반대하는 입장에서 특정인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60~163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의 대안이 실현되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도서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05 ③ **06** ⑤ **07** ⑤ **08** ② **09** ⑤

01 (가)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나)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측을 설득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 협상 참여자가 상대측의 주장을 비판하는 부분은 없다. (나)에서는 동아리 시간에는 도서관도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정비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일부 동의하고 있으나, 동아리 활동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측에 반박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이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다.

③ (나)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을 뿐, 타협을 통해 입장 차이를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가)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02 <보기>를 참고할 때, ‘목표점’이란 협상 참여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가)에서 도서관이 처음에 밝혔던 입장이 이 협상에서의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은 가사실을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였으므로, ①이 도서관의 목표점으로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②, ⑤ 도서관의 목표점은 가사실을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나, 제과·제빵 동아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로 변경하는 대안이 제시된 것이다.

③ 도서관은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고자 하였다.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익을 제과·제빵 동아리에게 양보하는 것이므로 도서관의 목표점으로 볼 수 없다.

④ 도서관이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에게 실습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사실을 책 읽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본래 목표에서 양보하는 것이므로 목표점으로 볼 수 없다.

03 ㉠에서 협상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제과·제빵 동아리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서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생각하는 협상의 목표점만을 밝히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에서 최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③ ㉠에서는 조리 시설과 수도 시설을 갖춘 공간이라는 조리실의 특징과 관련 수업이 없어 계속 방치되었다는 사용 실태를 언급하여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

④ ㉠에서 동아리 시간에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정비하는 활동을 한다고 설명하며 동아리 부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⑤ ㉠에서는 매점을 설치해 달라는 학생회의 요청이 현실적으로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그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04 도서관은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가사실 공간을 책 읽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아리 부장이 ④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 대안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도서관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도서관장은 (나)의 첫 번째 발언에서 상대측에서 제시한 대안이 도서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도서관장은 (가)의 두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건강한 재료로 손수 만든 간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② 도서관장은 (가)의 첫 번째 발언에서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공간이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고 동아리 지원금이 오븐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였다.

④ 도서관장은 (나)의 두 번째 발언에서 제과·제빵 동아리와 학생회가 도와주는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책 카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

으므로 상대측과 제삼자의 협조를 조건으로 상대측의 대안을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⑤ 도서부장은 (가)의 두 번째 발언에서 사서 교사의 지적과 조언을 수용하며 자신의 발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

06 (나)에서 동아리 부장은 학생회 회의에서 매점을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 카페 운영 시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는 매점 설치가 아니라 책 카페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음료를 판매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므로, 책 카페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에서는 양측 모두 학생들을 위해 공간과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에서는 도서부는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제과·제빵 동아리는 간식 제공을 통해 잠재적 고객들의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책 카페 운영 시 양측이 얻게 될 이익을 정리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에서 근거를 제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에서 자신의 이전 발언을 보완하지도 않았다.

② ㉢에서는 양측의 공통적인 협상 목표를 제시했을 뿐, 상대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는 상대측 발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에서는 양측의 공통적인 협상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자 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에서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에서는 양측의 공통적인 협상 목표를 제시했을 뿐, 상대측의 발언에 대하여 주관적인 입장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는 상대측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08 ㉠은 가사실을 독서 공간으로 꾸밀 비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사서 교사가 제안한 내용이다. 가사실의 책상을 활용하고 단장하면 독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비용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에서 동아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③ ㉢에서 동아리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

④ ㉣에서 가사실을 독서 공간으로 꾸미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을 뿐, 이는 학생회의 요구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⑤ ㉤에서 제과·제빵 동아리가 제시한 대안, 즉 스터디 카페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제과·제빵 동아리가 제시한 대안이 수용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실내 장식 디자인이나 서비스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라는 문구를 통해 이 대화에서 언급된 모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진로 실습의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의문문으로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무리하였다.

| 오답풀이 | 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므로, 모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므로, 모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문문 형식으로 마무리하지도 않았다.

③ 모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책 카페 운영 과정 자체가 실내 장식 디자인이나 서비스업 등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해당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공모에 참여하여야 책 카페가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문문 형식으로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

④ 이 대화에서 언급된 모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공모를 통해 얻게 될 기대 효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03 논증하는 글 쓰기

본책 166~167쪽

꼭꼭 꼭 소단원 평가 문제

01 ③ 02 ② 03 ④ 04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05 ② 06 ⑤

01 (나)에서 ‘유럽 연합은 2018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하였다.’라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2014년에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 우려되거나 지워지길 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최근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 털기’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우리나라는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⑤ 우리나라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 조항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해당할 뿐, 개인의 삭제권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인 삭제권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2018년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한 유럽 연합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03 ‘과거의 부정적 기록이나 범죄 이력 등이 삭제될 수 있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잊힐 권리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잊힐 권리가 개인 정보 도용으로 잘못 사용되는 문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보기 어렵다.

04 이 글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글로, 글쓴이의 주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다)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글의 결론 부분에서 찾아 바르게 제시하였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주장과 이유, 근거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ㄱ)’, ‘근거가 객관적이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ㄷ)’, ‘근거가 신뢰할 만한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한 것인가?’, ‘이유와 근거가 편파적이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가?(ㄴ)’,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은 주장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등이 있다.

| 오답풀이 | ㄴ. 주장은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이므로 신뢰할 만한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지 여부는 적절하지 않다. 신뢰할 만한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논증 요소는 근거이다.

ㄷ. 개인적 경험과 의견은 주관적 요소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ㄹ. 논증 요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신뢰할 만한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06 <보기>는 카피레프트를 통해 소수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카피레프트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지적 재산권 강화는 카피레프트와 반대되는 입장이

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이유 1’의 근거 자료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을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와 힘의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는 카피레프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는 카피레프트와 저작권의 조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 카피레프트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카피레프트(copyleft)

소유권은 저작자가 갖되 그것을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은 공공의 소유로 하자는 것을 말한다. 카피라이트(copyright)가 배타적인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카피레프트(copyleft)는 이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지적 재산의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하고 널리 유통시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고난도 **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68~169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5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06 ③ 07 ⑤**

01 우리나라는 아직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정보 삭제의 권리가 모든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02 논증하는 글의 서론에서는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을 밝히며 앞으로 주장할 바(논지)를 제시한다. 이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가)에서는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며 ‘잊힐 권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은 결론인 (라)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잊힐 권리’의 법제화 도입으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④, ⑤ 이 글의 본론인 (나)와 (다)에 대한 설명이다.

+ 참고 자료

논증하는 글의 구성 단계별 특징

서론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을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본론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결론	본론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과제를 제시하거나,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03 신분 도용을 통한 금융 사기나 불법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 수 있는 문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빈이의 발화는 지훈이가 제시한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05 (나)와 (다)는 이 글의 본론으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의 시작 부분에서 이 글의 주장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를 찾아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특정 기업이 많은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카피레프트로 인해 자유롭게 공유된다면, 그 기업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연구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은 특정 창작자나 기업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카피레프트’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07 [A]는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개요와 반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A]에 들어갈 내용은 카피레프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인 ㉡가 가장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70~17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길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챙겨 다니는 삶 **08**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어느 동아리에서 사용할 것인가? **09** ㉣ **10** 조정 단계, (나), (다)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2023년 4월에 시행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3,488건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 **22** ㉡ **23** ㉢ **24** ㉢ **25**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6** ㉡ **27** ㉢ **28** ㉡: 근거 자료, ㉢: 논증 요소, ㉣: 개요 **29** ㉡

01 (나)는 주장하는 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합리적 소비의 기준은 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02 (나)의 네 번째 문단에서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합리적 소비를 판단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3 주제 통합적 읽기는 여러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종합하며 읽는 것이다. 글쓴이의 인생관과 자신의 인생관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수필을 읽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다.

+ 참고 자료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주제 통합적 읽기란 동일한 화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이나 자료를 읽으며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의 고려 사항

- 글이나 자료에 나타난 화제나 주제, 쟁점을 중심으로 읽는다.
- 여러 글이나 자료를 단순히 비교·대조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종합하며 읽는다.
- 글이나 자료에 담긴 관점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우며 읽는다.
-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글이나 자료 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읽는다.

04 (가)의 두 번째 문단을 통해 ‘윤리적 소비’란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소비 활동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에서 나아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 ① 윤리적 소비는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공정 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는 소비 방식이다. 환경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③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비 행동으로, 단순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④ 처음 윤리적 소비가 등장했을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⑤ 윤리적 소비는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세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에는 자신의 소비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자기반성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찬장의 많은 접시 중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해 보려 했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② (다)에서 물건이 흔치 않았던 과거와 현재의 소비 태도를 대비하며 현재의 소비하는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③ ‘좀 낫설고 번거롭더라도 소비하는 삶보다 지속 가능한 삶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는 건 어떨까요?’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해 바람직한 소비 태도를 권하고 있다.

④ ‘바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될 수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미리 도시락을 챙겨서 나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 있겠더군요.’라고 스스로 답을 하는 자문자답이 나타나 있다.

06 글쓴이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은 편리하고 풍족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므로, 물건이 흔치 않았던 과거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챙겨다닐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물건이 흔치 않았던 시절과는 다른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07 ㉠는 물건이 흔치 않았던 시절, 누구든 길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챙겨 다니던 삶을 가리킨다.

08 (가)에서 ‘지도 교사’가 “학교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간의 이용 권한과 함께 동아리 지원금을 준다고 신청서를 받았습시다. 이에 신청서를 제출한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가사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 보죠.”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협상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서 드러난 정보를 참고하여 쟁점을 썼다.	☐
의문형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9 독서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사서 교사가 아니라 지도 교사임을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서 교사는 책상 배치를 바꾸고 학생들과 단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0 (가)는 협상의 시작 단계, (나)와 (다)는 조정 단계, (라)는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보기>는 협상의 ‘조정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나), (다)이다.

참고 자료

협상의 단계

시작 단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밝히며 문제가 되는 지점을 확인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조정 단계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해결 단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상대방과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다.

11 제과·제빵 동아리의 실습으로 가사실이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도서부장의 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추측성 발언이므로 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에 이어 발언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12 ‘지금도 도서관에서 과자나 사탕을 나눠 주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주 오도록 격려하고 있지만’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제과·제빵 동아리가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주 오도록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나누어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13 협상을 할 때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은 할 수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과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14 협상을 진행할 때는 협상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하며, 우리측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ㄴ), 상대방의 요구와 목적

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듣기·말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협상에 임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ㄴ).

| 오답풀이 | ㄷ.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ㄴ. 협상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므로 우리 측의 이익만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15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필요성 점검’은 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협상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④, ⑤는 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협상의 주제로 적절하다.

16 ‘잊힐 권리’가 인정되고 삭제권을 명시한 유럽 연합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대조하여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7 논증하는 글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주장과 이유, 근거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ㄴ), 이유와 근거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ㄷ),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은 주장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ㄴ)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오답풀이 | ㄱ. 논증하는 글에서 화제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객관적이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주장이 아닌 근거와 이유이다.

ㄴ. 논증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하므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표현 방법이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

18 이 글에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정보 주체가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 우려되거나 지워지길 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잊힐 권리’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누리 소통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져서 개인의 잊힐 권리가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고 하였다.

④ (나)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 (나)에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나)의 첫 번째 문장에서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두 권리는 서로 다른 권리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불법 정보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 데에서 개인의 잊힐 권리와 알권리가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개인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불법 정보가 아니면 규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0 ㉠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 명시해야 하는 이유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은 잊힐 권리가 존재한다는 논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므로 ㉠을 ㉡의 구체적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에서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에는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을 막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적을 제시한 후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③ ㉢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는 주관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 이유로 볼 수 있다.

④ ㉣은 유럽 연합에서 ‘삭제권’을 명시한 사례로, ㉡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21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만에 3,488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임을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유에 대한 근거를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22 ②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23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뢰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활용할 매체를 먼저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4 (나)로 보아 유럽 연합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삭제권’을 명시하였으나, (가)로 보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25 [A]가 들어갈 문단은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단계로, 서론의 마지막인 [A]에는 개인 정보의 침해 예방을 위해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을/를 ~해야 한다.’의 형식으로 썼다.	☐

26 이 글에서는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연역의 방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27 [반론 1]에서는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므로 개인의 잊힐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반박으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신상 털기’와 같이 개인 정보 유출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도,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박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공공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론 1]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공공의 알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것은 맞지만 공공의 알권리가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공공의 알권리가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반론 1]을 지지하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반론 1]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반론 2]에서는 개인의 잊힐 권리가 악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철저한 개인 정보 검증 과정으로도 잊힐 권리의 의도적 악용을 막기 힘들다는 것은 [반론 2]에서 다룬 내용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반론 2]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개인의 잊힐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도 될 만큼 개인 정보 보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반론 2]에 대한 반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28 논증하는 글을 작성할 때는 주장을 정한 후 주장에 대한 이유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논증 요소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논증하는 글을 써야 한다.

29 ②는 귀납의 문제점이다. 귀납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로 주장을 도출할 경우 결론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1. 나, 너, 우리가 만나는 길

본책 182~183쪽

(01) 문학의 해석과 생활화

- ① 의지 ② 수미상관 ③ 결실 ④ 기다림 ⑤ 꿈 ⑥ 겨울
⑦ 가정

01 ① 02 ① 03 ④ 04 ① 05 ④ 06 ㉠과 ㉡은 종결 어미 ‘-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7 ①

01 (가)의 시적 화자는 ‘당신’과 만나 함께 꿈을 엮어 나가는 미래의 순간을 가정하면서 ‘당신’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시적 화자는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을 가정하면서 ‘당신’의 곁에 머물며 ‘당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두 시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②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나)는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 등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가)는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지 않았다.

④ (가)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고, (나)에서는 ‘나무 그늘 사이’, ‘책상 밑’ 등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간에서 특정한 사물을 포착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에는 ‘귀뚜라미’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가)에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02 (가)의 시적 화자는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당신’을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03 비평문은 시어나 시구, 표현 방법, 작가의 생애 및 다른 작품,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근거로 쓸 수 있으므로, 작가의 생애를 배제하고 비평문을 쓰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시는 ‘당신이 ~때에(-거든) ~ 나의 꿈은 ~겠습니다.’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시적 화자의 바람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5 [D]는 ‘나’와 ‘당신’이 서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안하는 과정을 통해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오답풀이 ① [A]에서 ‘당신’과 ‘나’를 옷감을 짤 때 가로 실을 뜻하는 ‘날’과 세로 실을 뜻하는 ‘씨’에 비유하여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의 ‘하나의 꿈’과 ‘한 폭의 비단’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로, ‘당신’과 ‘나’가 만나서 만들어 낼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③ [C]의 ‘추운 길목’, ‘오랜 침묵’은 시적 화자가 겪을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을 나타낸다.

⑤ [E]의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चुके 하리’에서 ‘당신’과 ‘나’의 사랑이 있다면 겨울 추위와 같은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와 믿음이 드러난다.

06 ㉠과 ㉡은 모두 종결 어미 ‘-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운 길목’이나 ‘겨울’과 같은 외부의 암담한 시련을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종결 어미 ‘-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썼다.	☐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을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게 썼다.	☐

07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 (가)의 ‘꿈’은 산업화로 인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당대 민중들이 연대를 통해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나)의 ‘꿈’은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문학 작품 해석의 근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문학 작품을 둘러싼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이 작품에 다층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내재적 관점	시어의 운율과 표현, 작품 구조 등 작품 자체를 근거로 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외재적 관점	작가 맥락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 창작 의도 등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독자 맥락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사회·문화적 맥락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문학사적 맥락 창작 당시의 문학적 경향이나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2)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① 배경지식 ② 난이도 ③ 소통 ④ 목적 ⑤ 요약 ⑥ 매체
⑦ 어조 ⑧ 가치관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7 ③
08 창의적인 순간

01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때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결과물이 아닌 사고방식을 흉내 내고 꾸준히 변형하는 것이 창의적 발상의 출발이라고 하였다.

②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③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⑤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02 <보기>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적 독서 활동은 동일한 감상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글에 대한 다양한 감상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03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발표자는 청중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전문어를 풀이해 주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⑤ (가)의 발표자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프엠알아이(fMRI)를 활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각 자료나 설문 결과, 통계 자료 등은 활용하지 않았다.

②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발표자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청중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가)의 발표자는 수시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다.

04 (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사실을 알리는 말하기 중 하나인 강연(발표)으로, 뇌 과학 측면에서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05 ‘회주’는 재능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지민’과 ‘민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일상에서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접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06 (가)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질문을 던져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ㄱ), 두 번째 문단에서 청중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과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단호한 표정)과 언어적 표현을 결합하여 발표를 전개하고 있다(ㄴ).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신경 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며 운동을 할수록 더욱 많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에 신뢰감을 주고 있다(ㄷ).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 내 봅시다.’와 같이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 청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ㄹ).

○ 오답풀이 | ㄴ. 발표에 발표자의 경험이나 매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ㄷ. 발표자가 말의 어조나 속도, 고저 등을 조절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7 “창의력이란 연결하는 능력이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은 창의력이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의미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하여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동화 같은 이야기’는 뉴턴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즉, 사람들이 뉴턴의 천재성을 부각하기 위해 뉴턴이 영감을 받아서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생각의 노동’은 창의적 아이디어는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오래 쌓이고 숙성되면서 그 결과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④ 글쓴이는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특한 맛’의 원관념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⑤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하였다.

08 (가)의 발표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후,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 내자고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에 들어갈 말은 ‘창의적인 순간’이 적절하다.

2. 미래로 이어지는 국어의 발자취

본책 188~189쪽

(01) 국어와 매체의 변화

① 어두 자음군 ② 방점 ③ 주격 조사 ④ ㅅ ⑤ 에 ⑥ 어리석은 ⑦ 인터넷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이 어 적기를 했다.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다. 06 ② 07 ⑤ 08 ③

01 명사형 어미로 현대 국어에서는 ‘-(으)ㄴ’이나 ‘-기’가 쓰이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음’이 쓰였다. ‘·날·로·부·메’에서 명사형 어미 ‘-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나·랏·말싸·미’에서 관형격 조사 ‘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쁘·들’, ‘·날·로·부·메’ 등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방점을 글자 왼쪽에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흙·배’, ‘·몸·흙’, ‘·깁·노·니’, ‘·수·비’에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자를 확인할 수 있다.

02 양성 모음 ‘ㅏ, ㅑ, ㅓ’는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 ‘ㅜ, ㅠ, ㅡ’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는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졌다. 그러나 ‘·수·비’는 음성 모음 ‘ㅜ’와 중성 모음 ‘ㅣ’가 결합하였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로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쁘·들’에서는 음성 모음인 ‘ㅡ’와 음성 모음 ‘ㅜ’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롤’에서는 양성 모음인 ‘ㅑ’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깁·노·니’에서는 양성 모음인 ‘ㅓ’, ‘ㅑ’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부·메’는 음성 모음 ‘ㅜ’와 음성 모음 ‘ㅣ’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03 ‘ㅁ춤내’는 ‘드디어 마지막에는’이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의 ‘마침내’와 의미가 동일하다.

▶ **오답풀이** | ①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린’이라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③ ‘놈’은 중세 국어에서 ‘사람’이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하였다.

④ ‘하나라’의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 ‘많다’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

다’ 등을 뜻하는 단어로 그 의미가 다르다.

⑤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불쌍히’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04 ‘·흙·배이·셔·도’에서 ‘배’는 ‘바 + ㅣ’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바’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j]’가 아닌 모음이어서 주격 조사가 ‘ㅣ’로 실현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말싸·미’는 ‘·말쌈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② ‘아·니흙·씨’에서는 주격 조사를 확인할 수 없다.

③ ‘·백·뵈·성·이’는 ‘·백·뵈·성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⑤ ‘·노·미’는 ‘·놈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05 ‘나·랏·말싸·미’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싸·미’를 분석하면 ‘말쌈 + 이’의 형태가 되는데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 ‘ㅁ’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것에서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①의 표기상 특징을 정확하게 썼다.	☐
특징을 세 가지 이상 썼다.	☐

06 ‘나·랏·말싸·미中동國·궐·에달·아’는 현대 국어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이다. 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가 현대 국어의 ‘과/와’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07 새말은 간단하고 빠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거나 새말을 사용하는 대화자 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새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이 점점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체를 통해 대화할 때도 어문 규범을 지킨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8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2)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

- ① 소리 ② 어법 ③ 단어 ④ 조사 ⑤ 된소리 ⑥ 두음 법칙
⑦ 원형

01 ② 02 ③ 03 ② 04 '사과던지 포도던지'는 '사과든지 포도든지'로, '담궜다가'는 '담갔다가'로 고쳐 쓴다. 05 ③ 06 ㉠: 길 이, ㉡: 부사, ㉢: 벌이, ㉣: 명사, ㉤: 적습니다

01 '다잡고'의 발음은 [다잡꼬]이므로 '다잡고'로 표기하는 것은 발음에 따라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형이'에서 '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열심히'는 [열심히]로 소리 나지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④ '시험공부'는 [시험공부]로 소리 나므로 '시험공부'로 표기한 것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했다'는 [했따]로 소리 나지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02 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가', '이제', '믿을', '것', '은', '실력', '뻔', '이다'는 각각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하지만, 그중 '가', '은', '뻔', '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뻔'은 '그것 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오답풀이 | ① 제시된 문장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접시에는 먹을 만큼 담아라'가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② 제시된 문장에서 '처럼'은 조사이므로 '그 사람은 아이처럼 순진했다'가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④ 제시된 문장에서 '훌륭한'과 '사람'은 각각 하나의 단어이므로 '그는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다'가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⑤ 제시된 문장에서 '두 대'의 '대'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그 거리에는 차 두 대가 세워져 있었다'가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03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깍두기'와 '깍뚜기' 중 '깍두기'가 적절한 표기이다.

04 '사과던지 포도던지'는 문장의 맥락상 조사 '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들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든지'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쓰는 보

조사이다. '담그다'에 어미 '-았-'이 붙으면 어간 '담그-'의 'ㄱ'가 탈락한다. 따라서 '담궜다가'는 '담갔다가'로 수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여 알맞게 고쳐 썼다.	☐
두 개를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 썼다.	☐

05 한글 맞춤법 제27항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며칠'을 용례로 들고 있다.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 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어미 '-ㄹ게'는 '-ㄹ께'가 아니라 '-ㄹ게'로 적어야 한다.

②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않-' 뒤에는 다른 용언의 어간이 올 수 없으므로 부사 '안'을 써서 '안 했다'라고 표기해야 한다.

④ '걸'은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 '거' 뒤에 조사가 붙은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많은'과 '걸'은 띄어 써야 한다.

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라 부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곰곰이'로 써야 한다.

06 ㄱ의 문장에 들어갈 단어인 '길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을 의미하는 부사이며, 어간 '길-'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다. ㄴ의 문장에 들어갈 단어인 '벌이'는 '일을 하여 돈이나 재물을 벌'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다. 두 단어 모두 한글 맞춤법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3.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힘

본책 192~193쪽

(01) 매체를 보는 다양한 시선

① 광고 ② 표제 ③ 자막 ④ 지속적 ⑤ 비판적

01 ② 02 ① 03 ⑤ 04 ③

01 표제 ‘인공 지능 그림 … 미술전 1위 논란’에서는 화제를 제시하고만 있을 뿐 대중의 상반된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다. 대중의 상반된 반응은 “예술의 죽음” 대 “예술의 개념 확장”과 같이 부제에 제시하여 표제에 언급된 ‘논란’이 무엇인지 독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표제란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이 기사는 표제에 “악마의 영감을 받은 느낌”이었다는 말을 인용하여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③ 부제의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 필요해’는 글쓴이의 생각을 요약적으로 드러낸 부분으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④ 본문에서 인공 지능으로 만든 제이슨 앨런의 그림이 미술전에서 1위를 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본문에서 “예술을 예술답게 만드는 본질은 무엇이며,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여 독자에게 인공 지능 그림과 관련하여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02 (나)는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 줍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광고의 주제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문구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② 자막에서 ‘다르지만’, ‘이어 가고’를 반복하여 서로 입장이 달라져도 존중과 배려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지만 ~을/를 ~고’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도움을 받은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을 반복하는 연출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광고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세대, 인종, 성별이 다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03 A는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 디지털 이미지 조작 도구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인공 지능을 예술에 활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보며, 인공 지능 그림을 출품한 제이슨 앨런이 미술전에서 수상한 것을

옹호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의 ‘샤를 보들레르’는 사진과 같은 기술이 예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논란과 관련하여 인공 지능을 이용한 예술에 우호적인 관점을 지닌 A는 B의 ‘샤를 보들레르’에게 예술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예술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4 <보기>는 (나)가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소재로 활용해 공감을 유도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보편적인 메시지가 나열되는 방식으로 전개하여 비교적 단조롭다고 아쉬워하고 있을 뿐, 광고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광고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의 주제가 시의성이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소재로 활용해 공감을 유도’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보편적인 메시지가 나열되는 방식으로 전달돼 시선을 끌거나 귀를 사로잡는 요소가 없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영상 전개 방식이 존중과 배려가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참고 자료

광고 개관

갈래	공익 광고	성격	설득적
주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		
특징	• 영상, 음악, 문자 언어 등으로 내용을 전달함.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함.		

본책 194~195쪽

(02) 보고하는 글 함께 쓰기

① 관습 ② 목적 ③ 객관적 ④ 출처 ⑤ 쓰기 맥락 ⑥ 개인적

01 ① 02 ① 03 ④ 04 객관성을 중시하는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의견인 ㉠을 삭제해야 한다. 05 ④

01 보고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이 글은 조사 보고서로, '조사 동기 및 목적 - 조사 계획 - 조사 결과 및 소감 - 참고 자료'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 오답풀이 | ② 이 글은 공연 관련 직업 조사 보고서이다. 조사 보고서는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찰 및 실험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쓴 글이다.

③ 이 보고서는 문자 언어와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보조 자료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④ 이 글은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⑤ 보고서에 활용한 자료는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조사 보고서의 형식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를 시작한 계기, 조사를 통해 알고 싶은 내용 등을 제시함
조사 계획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및 방법, 역할 분담 등을 제시함
조사 결과 및 소감	객관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그림이나 사진, 표나 그래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함
참고 자료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리하여 제시함

02 ㉞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태도에 대한 전문가와의 면담 자료이다. 이 자료는 공연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태도적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㉞는 [A]가 아닌 [C]에서 활용해야 하는 자료이다.

| 오답풀이 | ②, ③ [B]에는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④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으므로, [B]에 들어갈 정보로 적절하다. 이때 활동의 종류와 각 활동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수치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재구성하면 자료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④를 그래프로 재구성하여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④, ⑤ [C]에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관련한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㉞는 공연을 만드는 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면담한 내용이다. 하지만 면담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면담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면담 대상자의 이름과 소속을 밝혀 면담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참고 자료

보고서에 사용되는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

신뢰성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야 함.
적절성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함.

03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할 때 '조사 계획'에는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및 방법, 역할 분담' 등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은 보고서의 작문 관습에 맞지 않으므로 ㉡을 삭제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문장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
㉡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

05 공동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ㄷ) - 내용 생성하기(ㄴ) - 내용 조직하기(ㄱ) -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ㄹ)'의 순서로 작성한다.

4.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

본책 196~197쪽

(01) 사랑, 그 속에 담긴 아픔

① 3음보 ② 적극적 ③ 질삼뵈 ④ 대동강 ⑤ 이별의 정한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사공 06 ①

01 고려 가요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민요에서 형성된 것으로, 당시 우리의 문자가 없어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 오답풀이 | ① 이 작품은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이 나타난다.

② 이 작품은 분연체, 즉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이 작품은 여음구, 후렴구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고려 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남녀 간의 사랑)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참고 자료

고려 가요의 특징

형식	3음보의 율격과 분연체의 구성을 지니며 후렴구가 발달함.
내용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정한, 자연에 대한 예찬 등 민중의 삶에 드러나는 감정과 정서를 가식 없이 진솔하게 드러냄.

02 1~4연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에 대한 거부와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8연에서는 구슬과 끈에 빗대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다. 9~14연에는 임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질투심과 불안감이 드러나 있다.

03 '대동강'은 임이 떠나가는 이별의 공간이자 시적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단절의 공간으로, 시적 화자와 임은 대동강에서 재회를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 '서경(㉠)'은 시적 화자가 임을 만나 사랑했던 곳이자 생활했던 터전으로,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공간이다. '대동강(㉡)'은 임과 이별하는 공간이다.

04 ㉠은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다르게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 같은 후렴구는 연의 마지막에 붙여 연과 연을 구별하고, 경쾌한 리듬감을 주며 구조적 통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05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입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가게 한 제삼자인 사공에게 전가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 없어서 “비 내어 노흔다 사공아”라고 하며 사공에게 대신 화풀이하고 사공을 원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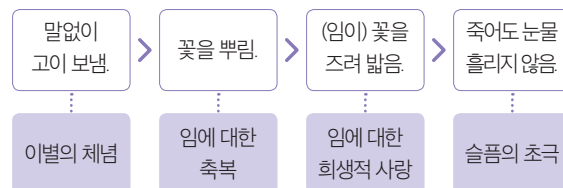
06 고려 가요인 「서경별곡」과 현대시인 「진달래꽃」에서는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적 율격 중의 하나인 3음보 율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경별곡」과 「진달래꽃」은 한국 시가 문학의 내용적 특징인 이별의 정한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진달래꽃」 개관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정하여 이별의 정한과 슬픔을 드러낸 작품으로 시적 화자, 주제 등에서 전통적 시가 문학의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하던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고 희생과 인고의 의지로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민요적
소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특징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이 나타남. - 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남. -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애절한 심정을 노래함.



본책 198~199쪽

(02) 자연, 그 속의 여유로움

① 계절 ② 주제 ③ 은혜 ④ 금린어 ⑤ 안분지족

01 ③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1 시적 화자가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은 (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가)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선비의 유유자적한 삶을 표현하면서도 종장에 임금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풍류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다)는 힘든 농사일 속에서 누리는 농부의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나타나 있다.

➤ 참고 자료

「상춘곡」 개관

갈래	가사
성격	서정적, 묘사적, 자연 친화적
주제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
특징	• 시적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직유법, 대구법, 의인법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함.

「논밭 갈아 김 매고 ~」 개관

갈래	사설시조
성격	사실적, 낙천적
주제	힘든 농사일 속에서 누리는 여유로움과 즐거움
특징	•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열거법을 사용해 농부의 일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02 중장은 계절에 따른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봄에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일, 여름에 강가에서 바람을 쐬며 보내는 일, 가을에 작은 배에 그 물을 싣고 나가 흘러가는 대로 띄워 두는 일, 겨울에 샷갓과 도롱이를 쓰고 겨울을 보내는 일은 모두 시적 화자의 소박한 생활 모습을 보여 준다.

03 (가)의 ‘유신한 강파’에서 강물에 신의가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4 이 시의 갈래는 평시조로, 주로 양반 계층에 의해 창작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된다. 한 장의 길이가 다른 장에 비해 2구 이상 길어진 형태를 띠는 시조는 사설시조이다.

05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러가는 대로 띄워서 고기를 잡는 것은 소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는 삶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강호(江湖)는 시적 화자가 자연을 누리며 살고 있는 현실의 공간이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간이다.

② 탁료계변(濁膠溪邊)은 봄의 흥취를 즐기 위해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시름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다.

③ 고기마다 살찌 있는 모습은 풍요로운 가을을 보여 주지만 어부의 만선을 기원하는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눈은 겨울을 나타내는 자연물로 화자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③ 웃음, 그 속에 담긴 현실

① 역순행적 ② 어수룩한 ③ 비속어 ④ 소생 ⑤ 순환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② 08 ①
09 ③ 10 ③ 11 ③

01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사용되었다.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주변 인물의 심리 변화나 내면세계까지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오답풀이 | ①,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서술자가 되어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이 소설은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를 서술자로 삼아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서술자 ‘나’는 장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나’는 장인으로부터 점순이와의 성례를 약속받고 사경을 받지 못한 채 농사일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수룩하며 우직한 성격이다. 장인은 성례를 핑계로 ‘나’를 머슴으로 부려 먹고, 마름으로서 횡포를 부려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것으로 보아 교활하고 욕심이 많으며 인색하다. 점순이가 ‘나’에게 빨리 성례를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는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03 ‘봄→여름→가을→겨울’을 거쳐 다시 ‘봄’이 되는 계절 순환의 원리와 이 소설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제목은 ‘나’와 장인의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목 ‘봄·봄’은 ‘나’가 점순이와 성례를 치르지 못하고 이 문제로 계속 갈등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성례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봄’은 청춘 남녀에게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연정의 계절을 의미한다.

② 제목 ‘봄·봄’은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인 봄을 의미한다.

④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은 ‘나’와 점순이가 이성애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⑤ 이 작품의 제목은 ‘나’와 장인의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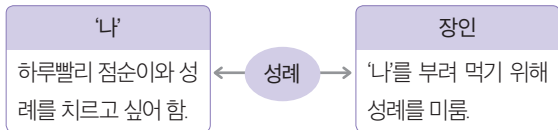
04 (나)에는 마름인 장인이 소작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부린 횡포가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지주나 마름의 횡포로 소작인이 큰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05 점순이는 성례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를 충동질하고 있으므로 성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인이 욕심 때문에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빨리 점순이와 성례를 치르기를 원하지만 장인은 ‘나’에게 일을 더 시키려고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고 있다.

➤ 참고 자료

‘나’와 장인의 갈등 원인



장인은 ‘나’에게 점순이가 다 크면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를 부려 먹는다. 이 말만 믿고 열심히 일하던 어수룩한 ‘나’는 교활한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계속 성례를 미루자 장인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07 점순이가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라고 말한 것은 ‘나’에게 성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지, 아버지와 몸싸움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

08 ㉠은 구장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인의 부탁을 받고 법률적 근거를 들어 ‘나’를 협박하는 것이다. ‘나’는 성례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 구장을 찾아가지만 구장은 마름인 장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소작인이기 때문에 장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오답풀이 | ② 뭇대는 장인의 속셈을 ‘나’에게 알려 주고, ‘나’를 충동질하여 장인과의 싸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③ ㉢을 통해 장인이 데릴사위로 들인 세 번째 인물이 ‘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인은 데릴사위제를 이용해 순진한 ‘나’의 노동력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있다.

④ 점순이는 성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고, ‘나’는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서 슬프고 무안함을 느끼고 있다.

⑤ 대상을 낮추어 이르는 말인 ‘녀석’과 존칭 표현인 ‘님’을 함께 사용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9 (다)에서 ‘나’의 편인 줄 알았던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어 ‘나’를 당황하게 한다. ‘나’가 장인과 적극적인 싸움을 벌인 것은 점순이의 충동질에 의한 것으로, ‘나’는 싸움이 나면 점순이는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 줄 알았던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나’는 장인과 싸운 후 너무 심하게 다툼 까닭에 쫓겨나리라 생각한다.

② (나)에서 장인은 ‘나’를 더 부려 먹기 위해 성례를 약속하며 다시 ‘나’를 일터에 나가도록 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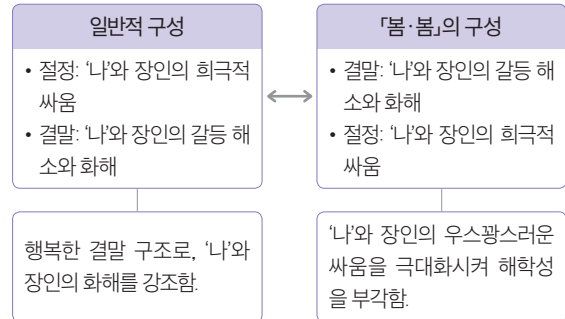
④ (나)에서 장인과의 싸움이 끝나고 난 뒤 장인은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담배도 주면서 회유와 위로를 한다.

⑤ (가)에서 ‘나’는 바짓가랑이를 잡힌 다급한 상황에서 장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10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사건을 전개하는 역순행적 구성이 사용되었다. 절정 사이에 결말을 삽입함으로써 절정에서 ‘나’와 장인의 희극적인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강조하고 있다.

➤ 참고 자료

‘결말’을 ‘절정’ 부분에 삽입한 효과



이 소설은 ‘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러운 싸움을 ‘절정 1’에 배치한 후 ‘결말’로는 두 인물의 어정쩡한 화해를 보여 주고 다시 ‘절정 2’에서 ‘나’의 반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한 것은 작품의 긴장감과 해학성을 살리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이다.

11 이 소설에 풍자와 조롱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소설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해학이다. 이 소설은 마름인 장인과 데릴사위인 ‘나’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해학은 대상의 모자라고 엉뚱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아서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법이다.

▶ 오답풀이 | ① (가)와 (다)에서 어수룩한 ‘나’와 교활한 장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이고 희극적인 싸움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② ‘이놈아’, ‘이 망할 게’, ‘얼빠진 등신’ 등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비속어를 사용해 해학성이 잘 나타난다. 또한, 바짓가랑이를 잡힌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호칭을 ‘할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해학성이 고조된다.

④ (나)에서 순진하고 어수룩한 ‘나’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⑤ ‘나’를 충동질해 놓고,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에서 해학성이 잘 나타난다.

5. 서로 다른 시선, 함께 찾아가는 삶

본책 204~207쪽

(1) 주제 통합적 읽기

① 설명 ② 기준 ③ 경험 ④ 지속 ⑤ 관점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④ 06 무소유란 소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07 ④

01 (다)의 글쓴이는 삶의 편의를 증진하는 소비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의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윤리적 소비의 확산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최근 사람들의 소비 기준이 변화한 구체적인 사례와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다)의 글쓴이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소박한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하는 고귀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경제적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 소비의 개념을 확장하여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비를 합리적 소비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02 (가)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윤리적 소비가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윤리적 소비가 소비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긍정적 구매 행동과 부정적 구매 행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윤리적 소비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환경, 인권, 노동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서 “윤리적 소비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해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⑤ (가)에서 영국의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3 (다)의 글쓴이는 최소한의 소비와 절제된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관이나 취향 등을 고려한 소비를 합리적 소비로 바라보는 (나)에 대해,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 소비를 하더라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다)의 글쓴이는 지속 가능한 삶을 강조하며,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는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다)의 글쓴이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는 것은 소비를 멈추려는 행동으로, 가치관이 반영된 소비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④ (다)의 글쓴이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올리는 날로 인식하고 있으나, (나)에서 설명하는 개성이나 취향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긴 결과로 생겨났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삶은 소박한 생활과 절제된 소비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만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4 (가)는 윤리적 소비, (나)는 합리적 소비, (다)는 최소한의 소비를 화제로 쓴 글이다. 이를 통해 소비의 형태는 다양하며, 개인마다 지향하는 소비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보기>를 참고하여 세 편의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고 각 글에 나타난 관점을 비교하였다면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소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나)에는 심리적 만족감을 고려한 소비가 제시되어 있지만, (가)와 (다)는 윤리적 가치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가 제시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와 같이 소비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윤리적 소비가 강조되지만, (나)와 (다)에서는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경제적 합리성 등 다양한 소비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④ (나)는 경제적 합리성 외에도 개성과 가치관을 고려한 소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가)와 (다)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

05 ‘이미 짜인 한 동아리나 대열 따위에 끼어 들어가다.’는 ‘편입하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편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두다.’이다.

06 (다)의 글쓴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유명 인사의 사례를 통해 최소한의 소유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소유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가)의 윤리적 소비와 (나)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는 모두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소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어떤 소비가 사회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보 간에 모순되는 점을 확인하고 평가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정하는 읽기 목적은 (가)~(다)가 ‘소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 있는 글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② (가)는 윤리적 소비, (나)는 합리적 소비, (다)는 최소한의 소비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가)~(다)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적절하다.

③ (나)의 내용이 읽기 목적에 유의미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가)~(다)에 나타난 다양한 소비에 대한 관점 중 (가)의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본책 208~211쪽

02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① 대안 ② 절차 ③ 입장 ④ 조정 ⑤ 합의

01 ⑤ 02 ⑤ 03 ① 04 ② 05 ① 06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간식을 제공하면서 잠재적 고객들의 평가를 받는 경험을 하며 더 성장할 수 있다. 07 ② 08 ④ 09 ‘도서부장’은 제과·제빵 동아리의 실습으로 가사실이 지저분해질 것이며 동아리 지원금이 오븐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말한 것이므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01 (가)는 시작 단계, (나)는 조정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협상의 절차는 시작 단계와 조정 단계이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협상의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0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자신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 즉, 목표점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숨기면 상대방에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다.

03 동아리 부장이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양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풀이 | ② (가)에서 동아리 부장은 실습실이 없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처한 문제 상황을 밝히고, 이를 이유로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가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목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도서부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려는 목표점을 밝히고 있다.

④ (나)에서 도서부장은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⑤ 동아리 부장과 도서부장은 이 협상의 쟁점인 가사실과 동아리 지원금 사용 권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리 부장은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의 실습 공간으로 만들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서부는 가사실을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고 지원금으로 새로운 책을 구매하기를 바라고 있다.

04 ㉠에서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하더라도 도서관이 지금처럼 조용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에서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하게 되면 간식을 제공하고 음료도 함께 판매하여 매점 설치 문제가 해결되고 도서부에서 바라는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05 도서부장이 가사실을 책 카페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자 동아리 부장은 이에 대해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일은 학생회와 저희 동아리가 도울 수 있어요.”라고 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에는 제과·제빵 동아리와 학생회가 책 카페 운영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제과·제빵 동아리 학생들도 자신이 만든 빵을 다른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경험을 하며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지도 교사의 발언을 통해, 제과·제빵 동아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간식(빵)을 제공하면서 잠재적 고객들(다른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경험을 하며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간식’과 ‘고객’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제과·제빵 동아리가 얻는 이익을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은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사실 책상을 활용하여 독서 공간을 꾸미자는 상대방의 제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은 제과·제빵 동아리가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한 뒤에 부족한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묻고 있다.

③ ㉡은 제과·제빵 동아리가 제안한 책 카페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④ ㉢은 제과·제빵 동아리와 학생회가 책 카페의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대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책 카페를 꾸미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공모하는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08 책 카페를 꾸미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공모하자는 ‘사서 교사’의 발언은 상호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부장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09 <보기 1>에서 ‘도서부장’은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가 사실이 지저분해질 것이며, 동아리 지원금이 오븐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들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므로 <보기 2>에서 강조하고 있는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 1>의 ‘도서부장’의 발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절히 요약하였다.	☐
문제가 되는 이유를 밝히고, <보기 2>에 언급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를 언급하며 발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
두 문장으로 썼다.	☐

참고 자료

협상 시 고려 사항

-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과 없는 지점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가능 영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협상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

-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의견을 전달할 때는 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왜곡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본책 212~213쪽

논증하는 글 쓰기

① 잊힐 권리 ② 논증 ③ 삭제 ④ 반박 ⑤ 연역

01 ⑤ 02 ④ 03 ④ 04 귀납

01 이 글로 보아 우리나라는 2023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을 뿐, 아동·청소년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① (가)에서 누리 소통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우리나라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우리나라도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유럽 연합은 2018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하였다고 하였다.

02 ④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 대한 예상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논증의 요소

주장	필자가 내세우는 의견
이유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주관적 요인
근거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주장, 이유와 근거에 대해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반박

03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신상 공개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법적 형평성을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따른 문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인 ‘현우’가 내세울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는 현상 1과 현상 2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